

충북 어우러짐
인문가치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최승호, 이경기, 김양식,
김미경, 김미옥, 유강하, 조병철

CRI
2019



Contents

제 I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인문학이란?	3
2) 정부의 인문정책	4
3) 충북지역 인문도시 육성 필요	6
2. 연구 방법 및 내용	8
1) 연구 방법	8
2) 연구 내용	8
3. 기대 효과	10
제 II 장 인문도시란?	11
1. 인문도시 개념	13
2. 충북형 인문도시 개념 설정	17
제 III 장 국내 지자체의 인문도시 육성 사례	23
1. 인문도시 사업 실태	25
2. 인문도시 육성 사례	29
1) 타 지자체 사례	29
2) 충북지역	44
3. 시사점	54
제 IV 장 충북지역 어우러짐 인문가치 육성	57
1. 역사문화 영역	59
1) 역사문화 인문자원 현황	59

2) 역사문화 인문자원을 활용한 인문도시 만들기	67
2. 자연환경 영역	71
3. 도시공간 영역	78
제V장 충북 어우러짐 인문도시화 기반 구축	85
1. 방향	87
2. 행·제도적 인프라 구축	89
제VI장 결론	93
참고문헌	97
부록: 충북 대표 100대 인문자원(안)	101

표 차례

<표 III-1> 2017년 기준 인문도시지원사업 지역과 수행 과제명	26
<표 IV-1>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현황	59
<표 IV-2> 충북지역 국보급 불교문화유산	60
<표 IV-3> 충청북도 역사 인물 분포 현황	63
<표 IV-4> 최근 재조명되거나 인문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역사 인물	64
<표 V-1> 인문학 관련 자치법규명 및 내용	89

그림 차례

<그림 IV-1> 인문학의 보고, 법주사 전경	67
<그림 IV-2> 세계 최초의 태교 서적 <<태교신기>>	70
<그림 IV-3> 성안길 전경	81
<그림 IV-4> 수암골 전경	82
<그림 IV-5> 수암골 배치도면	83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인문학이란?

■ 사전적 정의

- 인문학이란 “인간존재와 그들의 문화, 또는 인간의 가치와 인간 정신의 고유한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탐구 방법들을 다루는 지식의 분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ncyclopaedia Britannica, <http://premium.britannica.co.kr>.)

■ 법적 정의(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진흥법>)

- 제3조(정의)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

■ 인문학자들의 정의

- 인문학은 사유의 학문(Kaufmann, 2011), 인간의 인간다운 가치를 탐구하고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봉희, 2009), 자기의 정체성(identity)을 발견하기 위한 반성적인 지적 활동, 즉 인간다운 속성(humane property)을 탐구하는 학문(박이문, 1992: 228)
- 인문과학은 우리들이 선택한 의미와 가치를 반성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수정 혹은 보완해서 새로운 가치를 시험하고 창조하는 마당(박이문, 2009; 1992: 232),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전반적으로 인문적 소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려는 의지의 발현(김은우, 1993: 24)

■ 국내외 인문학의 위기

- 1990년대 중반 이후 취업에 불리한 인문학 전공을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축소하는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압박이 거세지며 인문학 위기감 팽배
 - 1996년 11월 전국 국공립대학 인문대학 학장들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인문학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촉구한 ‘인문학 제주 선언’
 - 2001년 전국 국공립대 인문대학협의회에서 인문학 기반의 붕괴를 우려하는 ‘2001 인문학 선언’ 발표
 - 2006년 고려대 문과대 교수들이 ‘인문학 선언’을 한 데 이어, 9월 마지막 주에 침체에 빠진 인문학의 부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문주간’행사가 열렸고, 그 개막식에서 전국 인문대학장단이 다시 성명서를 발표
- 인문학 위기 원인의 다양한 진단
 - 과학기술의 발전과 물질만능주의의 만연에 사유학문인 인문학의 영역이 조금씩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문학이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강단 위주의 인문학 위주여서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해석도 있음(천정환, 2015: 127)
- 각국 정부차원의 노력
 - 과학기술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인문학의 쇠퇴와 그에 따른 위기의식은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고조되어 각국은 인문학을 되살리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
- 인문학의 위기란 인간 정신문화의 피폐와 인간소외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

2) 정부의 인문정책

■ 한국 정부의 인문학 진흥 노력

- 인문한국(HK) 사업

- 인문학 연구소와 인문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장기 학술프로젝트
- 인문학 대중화 사업으로 전환
 - 2010년을 전후로 시행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문학 사업은 대학의 인문학을 일반인에게 소개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인문학을 확산하려는 대중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 2013년 하반기부터 공공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을 거점으로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여 공공도서관에서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
- 교육부의 인문학대중화사업의 일환인 시민인문강좌, 인문주간, 세계인문학 포럼 사업
 - 시민인문강좌는 인문학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
 - 인문주간은 연중 1주일 동안 공연, 전시, 문화체험 등을 통해 시민이 인문학을 접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2006년에 시작
 - 세계인문학포럼은 2011년부터 인문주간행사에 포함된 사업으로 21세기 한국과 세계의 석학이 모여 논의와 교류,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발효(2016년 8월)
 - 이는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문학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문학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 인문학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인문학은 인간과 문화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관련 학문 분야를 일컫음
 - *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이나 문화적 산물을 의미

○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 지원사업

- 시행 :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문학대중화사업
- 실행 주체 : 지자체, 대학, 각종 연구·문화기관(단체), 지역사회기관(도서관, 박물관 등)과의 협력
- 목적
 - 일반 대중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인문학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 인문학을 기반으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구현, 지역 및 국가 정체성 확립, 사회통합, 건전한 시민정신 배양,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경제적 이익 창출 등

3) 충북지역 인문도시 육성 필요

■ 개발, 발전 논리와는 다른 인간적 가치의 문제

- 오송생명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스마트 도시, 바이오 밸리 조성 계획 등, GRDP 4% 경제 달성 등 지역개발 및 경제논리에 상대적 빈곤과 소외 그리고 상처, 갈등의 배려가 부족한 지역 사회풍토
- 과거의 충북지역 역사문화 속에 선비정신, 중용의 덕이 오늘과 내일의 바람직한 신충북인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 21세기 창의성, 자율, 자기결정권, 참여 등 시대정신과의 부합 문제
- 사회 구조 자체가 가치관이 없으면 없을수록 능률을 지향하게 되어 있고 지역 및 개인 정체성, 다양성 존중보다는 백화점식의 유행성 용어의 범람, 획일적, 맹목적 의사전달 및 결정과 소통방식이 지배하게 됨
- 높은 자살률, 의외의 대형사고와 엽기적인 사건 사고 등의 발생 지역으로 인문가치의 복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성 제고 필요
 - 경쟁과 성장 추구 속에 개인 삶에 대한 성찰 필요

- 자아 및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사회적 비판 능력 배양과 타인에 대한 포용과 배려 문화 숙고 필요

■ 지자체의 인문학 사업

- 관 주도형 인문학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전체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있음
 - 이는 시민 스스로 인문학적 주제에 대해 숙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지역주민을 위한 인문학사업의 내실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인문학적 고민과 성찰이 절실
 - 지역의 소위 ‘인문(학)’이란 이름을 내건 사업은 냉정히 말해 기존 지자체의 사업(가족, 교육, 사회참여 등)을 ‘인문’이란 이름으로 재포장한 느낌
 - 이런 의미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과 기초지자체의 가교역할로 광역 차원의 인문학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 시군에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부처는 인문학이란 학문 그리고 인문학적 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동시에 각급 지자체의 정책담당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책무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충북형 인문도시 개념 설정에 의한 인문가치 제고
 - 지역 인문도시 개념 설정에 의한 인문자산 찾기
 - 충북형 인문도시 만들기를 위한 방향 설정 및 인프라 구축

2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인문도시 관련 국내 문헌 및 논문 조사

■ 사례 연구

- 국내 타 지자체의 인문도시 육성 사례 조사
- 도내 및 타 지자체 인문학 및 인문도시 사업단 관계자, 관련 기관 면담
 - 지역문화자산, 인문가치 탐색

2) 연구 내용

■ 인문도시란 무엇인가

- 인문학, 정부의 인문정책, 인문도시의 정의에 대한 논의

■ 충북형 인문도시 개념 설정

- 중앙정부의 포괄적이면서도 개괄적인 인문도시 개념이 아니라 충북형 인문도시 개념 설정

■ 국내 지자체의 인문도시 육성 사례 조사

- 수원시 :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2011), 전국 최초로 인문학 팀 조직(2013),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제정(2013.5)

- 춘천시 : 2008년 11월에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한국(HK) 인문치료사업단이 만들어져서 연구 및 학술활동과 실천사업 전개(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2016, 2017; 김유동, 2010)
- 산청군 : 2014.9월부터 3년간 연속으로 사업에 선정, 두 번째 사업 기간에는 ‘치유의 인문역사 공간 산청, 정신문화의 빛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진행, 현대인들의 삶을 치유하는 인문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충북지역 어우러짐 인문가치 찾기와 육성 아젠다

- 지역 역사문화 자산과 인문적 가치 발굴
 - 지역의 역사문화를 통해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인문적 가치를 발굴하고 정리
 - <직지심체요절>, <반찬등속> 등 고전을 통해서 가치와 지향점 발굴
- 자연환경 자산과 인문적 가치 개발
 - 대청호, 무심천 등 자연환경이 가져다주는 치유, 소통, 만남의 인문적 가치를 찾아 정리
- 도시 공간계획 속에 인문적 요소 찾기
 - 시설물 설치 등에서 이용자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한 만남, 소통
 - 광장과 문화 공간 속에 개방, 소통의 공간배치

■ 행·제도적 인프라 구축

- 인문가치 제고를 위한 조례제정, 인력양성, 시민참여 및 역할 등

3 기대 효과

- 지역민의 삶 속에 인문학이 스며들도록 하여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
 - 지역민의 자기성찰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내적 변화와 삶의 질을 지향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기
- 대중에게 인문학을 접할 기회를 제공
 - 지역 인문가치 대중화와 인문정신 제고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통하는 인문도시 건설 지향



인문도시란?

1 인문도시 개념

■ 인문도시 개념 탐색¹⁾

- ‘인문도시’라는 개념 자체는 아직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국내의 몇몇 도시에서 인문학과 문화예술 그리고 평생학습을 장려하는 도시라는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거나 미래 도시의 지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추상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도
- 외국에서 인문도시와 유사한 연구로는 Humane City, Human Metropolis, Good City, Humanist city, 도시의 인간화(humanizing)와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연구, 버밍엄 대학의 Human City 연구, 중국의 인문도시[人文城市], 대만의 인문도시[人文城市] 기획과 관련 연구 등을 들 수 있음
- 인문도시는 바람직한 앞으로의 도시에 인문학을 자양분으로 성장하여 자생적 문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냄으로써 도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바람이 들어 있음
- 인문학 개념의 추상성과 다양성, 인문가치의 광범위성
 - 사유의 학문으로서 인문학 개념의 추상성과 순수인문학뿐만 아니라 관련 학문을 아우르는 탐구 방법의 다양성
 - “인간존재와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다운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서 부터 인문가치의 광범위성
 - 플라톤의 순수 인문학 : 인간본성 및 본질에 대한 탐구로서 순수 인문학
 -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시민인성교육 인문학 : 대화, 토론, 소통을 강조
 - 얼 쇼리스(Earl Shorris, 2006)의 실천 인문학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

1) 이 부분은 (김지원, 윤영득, 2017: 20-21; 채영희, 2018: 46-49; 최희봉, 2010) 참조

실천<클레멘트 코스>

- 그리하여 인문도시를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지역 공간의 삶에서 어떤 인문학인가?

- 내적인 성찰, 탐구의 인문학 소양인지, 건전한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교육’인지, 실천적 의미의 나눔과 치유적 인문학인지, 경제적 가치 창출의 인문 콘텐츠화인지의 문제

< 인문학 유형 >

- 순수 인문학 : 지역 인문 자산과 가치 발굴, 인문적 소양 배양
- 실천 인문학 : “인문학과 현실사회를 합리적·실천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인문정신이 현실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우기동, 2009, 33), 인문학을 기반으로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실천적인 인문학
- 응용 인문학 : 지역 인문가치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인문가치 창출과 인문콘텐츠화, 브랜드화, 그리하여 부가가치 창출

- 수원의 ‘시민인문학’, 춘천의 ‘힐링인문학’, 여주의 ‘세종 인문도시’, 익산의 ‘인문르네상스 다다익산’(강연호, 2016) 등 지역 인문자산을 콘텐츠화하여 인문도시를 구현하려는 것처럼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문콘텐츠 개발이 필요

**<참고> 도시에 문화를 강조한다는 공통적인 의미에서 창조도시, 문화도시 비교 고찰
(원도연, 2011)**

창조도시	문화도시
창의적 사람과 혁신성 중시 정부보다 창의적인 민간 네트워크 중심 문화도시를 산업적으로 발전시킨 도시모델 창조산업, 창조계층, 창조성 등으로 개념 확장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잠재인프라로 인식 일반 시민과 예술인과의 교류 프로그램 중시 문화유산보다 창의적 예술인 중시	도시경관, 무형의 문화자원 중시 근대국가보다 도시(지방정부) 중심 문화, 전통, 역사 등 핵심 개념 동질성을 강화하는 도시정체성 기획 중시 전통과 역사 중심의 스토리텔링 중시 문화유산과 축제 등 기획 프로그램 중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중시

-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학 대중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문도시
- 문화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문화도시,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의 전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창조도시
- 창조도시, 문화도시, 인문도시는 공통적으로 그동안 도시 삶 속에 소외된 인간과 그 인간이 생산한 문화적 자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하여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로 귀착
- 문화도시가 도시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문화라는 방법론을 입힌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도시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고, 창의도시가 탈산업화와 탈물질적 가치체계의 확산과 그 대안으로 창조성에 바탕을 둔 산업 및 가치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의 창조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지적
- => 내발적 원동력, 즉 각 도시 구성원의 사업참여 의지와 도시 공동체 회복에 동참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

■ 인문도시사업에서 인문도시 개념

- 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등을 통해 인문학(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 등)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과 그 삶의 가치’ 회복을 추구하는 인문공동체를 의미
 - 인문공동체란 지역사회의 정신적 가치를 발굴하고 가시화하여 이것을 중심축으로 삼아 시민의 참여와 지역공동체 조직의 능동적 변화와 활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지역 공동체적 가치회복을 추구하는 사회

2 충북형 인문도시 개념 설정²⁾

■ 여건 및 배경

○ 충북민의 기질

- 충북민의 내향적 기질은 전통적으로 선도적, 주도하는 참여 문화라기보다 중심을 잡아주는 조정자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돌출 없이 타인과 어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정학적 위치

- 내륙으로 둘러싸인 폐쇄된 공간문화를 벗어나 국토의 중심부이며 사통팔달의 지정학적 영향은 교류가 가능한 개방된 열린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시사함

○ 공동체적 인문문화 육성 필요

-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간중심적 사고나 폐쇄적인 지역성을 벗어날 수 있는 공동체적 인문문화 지향 필요
- 자기 긍정성의 패러다임(능력, 성과, 자기주도, 과잉, 타자성의 소멸 등), 즉 성과사회에서 이질적 배제적 관계성이 아니라 타자와 타자 간, 지역적 공간과 장소를 이어줄 수 있는 관계성 회복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자각이 필요

■ 어우러짐 인문도시 설정

○ 의미

- 유사한 단어로 ‘어울림’이라는 용어는 주체의 의지가 담겨 있는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어우러짐’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 주체가 되며, 그 상태에서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상호 융화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이 장은 (현웅, 2009: 37, 46; 한병철, 2019; 강영안, 2001; 김세원, 2019: 209-214) 참조하여 구성한 것임

- 개체와 개체 간의 조화나 균형이 아니라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어우러지는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 인간의 본질과 속성을 찾는다는 의미
 - ▼ 여기에서 ‘나’를 중심에 세우고 진리인식의 주체로 간주하는 근대적 자아와는 다른, 즉 자기는 ‘나’라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정립된 나와는 다른 -> 공동체적 구성원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자아로서의 ‘나’를 표징
 - ▼ 실존은 자기 내부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물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서 내부를 초월한 존재(키에르케고르) -> 주변으로서의 자연 및 환경과의 공존성을 지닌 자아로서의 ‘나’
 - ▼ 자기가 이미 자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 -> 긍정적 지향으로 변형되고 개선되는 자아로서의 ‘나’
- 고대 그리스어의 자기 autos의 의미
 - ▼ ‘고유한’, ‘스스로’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개인만의 ‘독립적인’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기 보다는 공동체에 속함으로써만 존재하고, 스스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라 할 수 있음 -> 자기 주도적이면서도 공감적인 유대감을 지닌 자아로서의 ‘나’
 - ▼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는 타자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활동을 살피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말, 인간에게 자기란, 변화와 대립되는 불변의 의미로서 자체가 아니라, 시간을 살아가며 낫설고 타자적인 것과 관계를 구하고 그것을 다독여 나가며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자기임 -> 사회적 유기체성을 지닌 자아로서의 ‘나’
 - ▼ 푸코에게 실체로서의 영혼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영혼, 좀 더 부연하자면 행위를 통해서 타자와 관계 맺는 행위 주체로서의 영혼을 의미 -> 사회적 관계 확장을 주재하는 자아로서의 ‘나’
 - ▼ 하이데거에게 자기성은 낯선 것과 시간의 영향 안에서 구축되는 역동적 정체성으로, 한 사람이 자기 유지를 통해 자기가 됨을 의미 -> 시간적 존재를 인지하고 유동하는 자아로서의 ‘나’

- 개체와 개체를 구분 짓기보다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공동체 조직에서 교호(交好)하며 작동하는 집단적 정체성(우리)을 전제
- 인간의 몸이 각 신체기관과 감성, 이성, 즉 정신, 신체, 영혼이 통합, 어우러져 존재하듯이 (인문적) 자아도 형이상학적 본질이나 진리 보다는 움직임 속에서 상호 반응하는 결과물이라는 의미
-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고찰하고’ 관계의 능력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좋은 삶의 관건

○ 지향점

- 상기의 다양한 자아 개념을 포괄하면서도 상호 호혜적이고 유기체적 특성이 포괄된 융복합적 자아로서의 ‘어우러짐’을 표징할 수 있는 인문도시와 그 안에서 스스로없이 어우러지는 존재로서의 자아실현을 목표

- 공동체적 구성원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자아로서의 ‘나’
- 주변으로서의 자연 및 환경과의 공존성을 지닌 자아로서의 ‘나’
- 긍정적 지향으로 변형되고 개선되는 자아로서의 ‘나’
- 자기주도적이면서도 공감적인 유대감을 지닌 자아로서의 ‘나’
- 사회적 유기체성을 지닌 자아로서의 ‘나’
- 사회적 관계 확장을 주재하는 자아로서의 ‘나’
- 시간적 존재를 인지하고 유동하는 자아로서의 ‘나’



어우러짐을 구성하는 존재로서의 ‘나(I)’

- 그리스 고대 인문문화에서 나와 타자가 융합되고 신과 인간, 자연이 조화로운 질서와 체계를 이루었던 공동체적 시민문화 추구³⁾
- 신과 인간, 자연대상물과의 위계가 아닌, 주체와 대상(객체)이 구분되는 제도적 인위적 틀이 주가 아닌 시간, 역사, 공간, 사람, 자연 간의 어우러짐
- 모든 관계들이 나와 나 자신이 맺는 관계에 대한 사유와 성찰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점
- 우정, 효, 사랑, 존중, 배려와 같은 덕목과 가치보다는 우리의 다양한 관계 양상들을 성찰하며 그 사유의 결과물을 표현하고 함께 나누는 것에 보다 주의를 기울임
- 인문학적 성찰이란 시간, 공간, 장소, 타자를 항상 전제하며, 이러한 대상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

○ 주요 특성적 내용

- 과거, 현재, 미래의 인문적 가치가 연계되고 어우러져 발전
 - * 전통적인 충절이나 선비문화가 현재적 맥락에서 재해석되어 현대, 미래적 가치와 연결되고 새로이 발전되는 가치 창출
- 인간과 인간의 어우러짐
 - * 계층, 성별, 연령, 인종 간 소외 없이 소통, 공감, 나눔의 문화 지향
- 인간과 자연의 동화
 - * 인간 중심적인 힐링, 치유가 아닌, 대상으로서 자연이 아닌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교감하며 혼연일체

3) 아고라 광장

-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아래에 위치하며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로 여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소통한 장소
- 점차 시민을 위한 관청, 법정, 편의시설들이 들어서는 중심지가 되었음
- 서로 만나서 정치를 논하고, 매매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논쟁을 벌이던 장소였음
- 중요하게는 정치의 중심지였는데 공공모임 장소로 아테네 민주정치의 현상이었기에 정치와 관련되는 여러 공공건물들도 자리 잡고 있었음
- 고대 그리스 인문문화에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는 누구인가?' 이며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어,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는 뜻이며 나는 우주 속에 홀로 존재하지 않고 그들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통의 어우러짐 문화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음(2019.5.23.일~ 6.1일까지 그리스 아테네 인문문화 탐방)

- 공간과 어우러짐

* 물리적, 기계적인 공간이 아니라 숨 쉬고 생활하고 소통하는 공간의 의미

* 인문도시란 인문적 도시공간을 의미하므로 인문적 관계 형성과 내러티브(Narrative) 전략이 중요

- 자발적 행위자로서 어우러짐

* 인문도시 사업에서 기획자와 참여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사업의 기획자, 참여자, 평가자가 되어 수행



국내 지자체의 인문도시 육성 사례

1 인문도시 사업 실태

■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 지원사업

○ 지원 규모 및 운영 내용(한국연구재단, 2016)

지원규모	지원기간	운영 내용
100만원이내 / 연 (간접비 포함)	1년 또는 3년	- 지역 내 인문자산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강좌, 체험, 축제 실시 - 인문주간* 참여 필수 - 지자체(교육청), 지역사회기관(도서관, 박물관 등)과의 협력 의무화

* 인문주간이란 10월 중 1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축제 형식의 행사

○ 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인문강좌	초·중·고 학생, 소외계층 및 일반 시민 대상의 강좌로 지역의 특성과 연계
인문체험	지역의 인문학적 유, 무형 자산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사고와 방법 등을 고취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인문축제	교육부 인문주간 및 지역에서 인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특정 기간 동안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사고와 방법 등을 고취할 수 있는 강좌/체험/전시/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 신청 자격

- 신청 기관 : 대학(단과대학, 학과(부) 단위) 및 대학 부설기관, 대학 외부 각종 연구·사회·문화기관(단체)
- 참여 인력 : 총괄 연구책임자, 강사진(공동연구원), 강사보조원(연구보조원)

○ 주요 추진 일정

- 매년 4월 인문도시 신규과제 신청 공고, 5월~6월 인문도시 신규과제 접수 및 선정 평가 실시, 7월 인문도시 신규과제 연구개시

<표 III-1> 2017년 기준 인문도시지원사업 지역과 수행 과제명

권역	비율	지역	과제명
서울	7%	마포구	터무니 속의 더불어 삶, 인문도시 용산
		도봉구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 인문도시 도봉
경기권	22%	부평	부평, '인문시민: 시공간의 단절을 딛고 부평의 미래와 소통하다.
		계양	숲, 하천 그리고 토론과 만나는 인문학
		남양주	인문도시 고전과 역사문화, 생명의 감이 흐르는 소통의 공간
		안산	다문화도시 공동체의 치유와 재생: 삶의 이야기를 통한 참여인문학
		인양	인문융합도시 안양사람을 보다 삶을 나누다
		부천	부천 공동체 인문학-복사골 인문르네상스 플랫폼 구축
강원권	11%	원주	생명, 협동, 나눔의 미래 인문학 - 근본의 땅에서 튀운 생명의 씨앗들
		춘천	행복도시 춘천, 치유인문학을 구현하다
		강릉	인문정신의 요람 강릉대관령에서 경포대까지 인문학의 원석을 깎아내다
충청권	26%	홍주	천년 홍주의 역사, 인문도시로 거듭나다
		청주	청주, 명월 아래 인문의 청풍을 품다
		서산	서산 인문학의 미소를 담다: 마애불에서 프란치스코까지
		세종	인문학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만든다
		논산	동고동락하는 인문감성도시 논산-충과 예의 인문 공동체 창조
		충주	인문도시 충주, 5000년의 역사를 따라 걷다
		제천	역사문화자연환경 기반 제천: 글로벌 문화창의도시 구현
호남권	15%	익산	인문르네상스 다다익산-역사고도 인문도시 익산
		목포	다도해의 모항 목포의 희망 만들기 인문담론
		군산	3대가 함께 만드는 생생지락 인문도시 군산
		여수	해양 여수 인문도시를 꿈꾸다
		영주	미래로 가는 선비 인문도시로 디자인하다
		성주	생명힐링 인문도시 - 별고을 성주 웰빙과 웰다잉이 공존하는 공동체 만들기
		기장	미래를 준비하는 기장, 역사속 옛길에서 답을 찾다
		포항	영일만 친구, 인문학에 철들다: 미래를 여는 환동해 역사문화도시 포항
		하동	하동, 수다섬수: 결의 인문학으로 물들다
합계	100%		

- 과제 선정
 - '12년 2개 수원, 통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4년 10과제, '15년 15과제, '16년 9과제, '17년 10과제가 선정되었음
- 인문도시 지원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선정된 사업은 대개 3년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모두 27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지역 인문도시지원사업의 과제명을 보면 대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역사문화자원이 많은 지역이 사업을 수주하기가 유리한 편이고 그 외 자연생태를 소재로 한 과제들임
- 연구자의 인문적 성과확산을 위한 소명의식과 지자체의 사업 수행 의지와 대응 자금 등을 고려하여 인문도시 사업 지원
- 2016년 선정된 지역은 사업비가 1년에 1억 정도였지만 2017년에는 1억 5천으로 증액되었음

■ 현재까지 추진된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진단

- 시민인문강좌에서 직접적인 체험과 축제형식 제시
 - 이전 강좌 중심의 사업에서 강좌 이외에 체험, 축제라는 틀을 더함으로써 시민들이 인문학의 중심 주체로 나서게 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인문정신의 주체는 시민
 - 인문도시지원사업이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인문학으로 전환해야 함
 - 지역민이 의제를 함께 정하고 진행하는 자치학습공동체나 인문자원 공유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인문학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민 자치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지속가능성 고려
 - 사업이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발전까지 연계되는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려

- 인문학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전통의 현대적 계승, 지역공동체 삶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인문학 대중화의 목표 의식 명료화

- 대학의 강의를 끌어내는 것이 시민인문강좌가 아니므로 책임이나 배려, 정의와 같은 목표지향적인 강좌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변화 모색

2 인문도시 육성 사례

1) 타 지자체 사례

- 충북형 인문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향성 설정을 위해 국내의 세 도시(수원(대도시), 춘천(중도시), 산청(소도시))에서 진행되는 인문학에 대한 분석
 - 수원, 춘천, 산청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인문도시지원사업’을 2회 이상 진행한 도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1) 경기도 수원

■ 인문도시로서의 수원

- 인구 : 약 1,240,000명의 대도시
- 수원시는 “2011년부터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선도적으로 인문학 정신을 시정의 차원 까지 도입하는 정책 모델을 보여주고 있음. 수원시는 인문학을 시정 차원에서 접근한 최초의 사례임.”(박연규, 2015: 44)
-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의 일부를 통해 수원시에서 추구하는 ‘인문학도시’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1. “인문학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시민이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 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 구현 도시
- 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환경 조성 도시
- 다. 시민이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 라.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 마.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이 고취되고 주체적이며 평화적인 도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한국연구재단 지원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을 2회 운영함
 - 2012년: ‘21세기 실학, 시민인문학 발원지로서의 수원’
 - 2013년: ‘이웃의 인문학’

■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인문자산⁴⁾

- 국가지정문화재
 - 수원 팔달문, 수원 방화수류정, 수원 서북공심돈, 조선경국전
- 경기도 지정문화재
 - 정조어필, 정조예필, 정조한글어필, 번암선생집, 팔달문 동종, 봉녕사 불화, 흥재전서, 정조 어필 비망기 등
- 등록문화재
 - 구 수원문화원, 구 수원시청사, 경기도청사 구관,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등
- 수원시 향토유적
 - 향미정, 거북산당, 미륵당, 꽃피 제사유적지, 버드내 산제당, 화성문화제 ‘능행차 연시’, 조선의 무예 ‘무예 24기’ 등(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 수원행궁
-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관, 박물관 등의 인문자산

4) “인문자산이란 인문도시지원사업이 개최되는 지역에 소재한 미술관, 박물관, 유적지, 서원, 향고, 전설, 설화, 전래동요 등 유형적·무형적 자산을 의미함.”(이정희, 2018: 120)

=> 수원은 전통적인 인문자산이 풍부하고, 인문학을 수행,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

=> 지자체가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구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축제강연·체험활동

구분	내용
인문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연극축제: 지역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 잡음 • 수원화성문화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지역축제 • 수원재즈페스티벌: 2014년에 시작하여 매해 가을에 개최되는 가족음악 프로그램 • 수원발레축제: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 수원인문도시대축제(2016) • 수원시평생학습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문화재단을 통한 축제.5) 지역축제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도와 호응도에 따라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도 함
인문강연 / 인문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프로그램: 엄마표 독서학교 • 독서프로그램: 책과 함께 자라는 아기랑 엄마 • 인문독서프로그램: 2019 인문독서아카데미 • 인문학교육프로그램: 화성행궁 내 ‘인문학서당’운영 • 우리 아이 성장 프로젝트 • [인문학산책] 2019 ‘하나의 봄’ • “길 위의 인문학 - 지혜로운 삶의 지침서, 인문학 경전《사서(四書)》함께 읽기” •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니어 프로그램‘뭐라도 학교’ • 인문공연: 시와 음악이 있는 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독서, 예술에 걸친 포괄적 인문강연, 인문공연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인문학 메뉴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 ▶ 다양한 연령층, 니즈를 반영한 인문학 프로그램이 기획, 운영되고 있음 ▶ 인문학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장기·단기·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기획되고,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진행됨 ▶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학생과 직장인, 가정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화, 독서,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운영되고 있음

구분	내용
인문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수원 인문여행’(강연 + 예술 공연) • 인문주간 행사에 인문체험부스 따로 마련(전시체험, 퍼포먼스, 포럼 등 운영 진행) • 중소기업청‘수원인문기행특구’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수원화성, 나혜석 거리, 왕이 만든 도시역사 기행, 근대역사 기행, 문학기행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수원인문기행특구’는 인문학이 정신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증진, 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인문학 실천 기관 및 특징

기관	특징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20 여 개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⁵⁾ •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폭넓은 이용대상자가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됨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① 독서문화 프로그램 ② 동아리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음. • 다양한 강연형,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 • 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인문학, 환경, 취미·문학·예술, 시민교육, 답사·체험, 청소년·어린이, 건강·스포츠, 어학·외국어, 창업·직업교육, IT강좌 등으로 나뉘어 있음. • 어린이로부터 중·장년까지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⁶⁾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박물관사업소(수원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교육, 가족교육, 성인교육 프로그램 진행

5) 수원문화재단 (www.swcf.or.kr/)

6) 선경도서관, 중앙도서관, 창룡도서관, 화서다산도서관, 호매실도서관, 서수원도서관, 한림도서관, 버드내도서관, 북수원도서관,

기관	특징
수원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의 문화사업을 총괄 • 책문화사업, 기획공연 제작, 문화예술 창작지원, 시민문화 활성화, 공간재생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문화사업 진행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지원 2013년 '21세기 실학, 시민인문학 발원지로서의 수원', 2015년 '이웃의 인문학' 사업 선정, 진행 • 수원대학교 • 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 • 아주대학교: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길 위의 인문학' 진행, 그 외 다양한 시민참여형 인문강좌 시행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 SWOT

S(strength)	W(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의 적극적인 협력: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정 등 인문정신, 인문가치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와 노력 • 시민 연령층이 다양함 •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시 기획, 운영됨 • 다채로운 인문교양 프로그램의 무료 운영 • 젊은 층이 많아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며,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도와 호응도도 높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노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음.
O(opportunity)	T(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향유층이 두터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음 • 수원에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종합대학이 적지 않아서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가 직면한 문제, 즉 주거문제, 육아문제, 노숙인 문제 등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 소외 계층, 노숙자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이 필요함

대추골도서관, 일월도서관, 광고홍재도서관, 영통도서관, 태장마루도서관, 광고푸른숲도서관, 매여울도서관, 망포글빛도서관, 슬기샘도서관, 지혜샘도서관, 바른샘도서관

- 7) 수원교육포털(http://www.suwon.go.kr/web/edu/BD_index.do)
 도서관사업소 독서문화프로그램(http://www.suwonlib.go.kr/sk/html/03_culture/culture01.asp)
 수원문화재단 교육정보(<http://www.swcf.or.kr/?p=30>)
 박물관사업소 교육프로그램(<http://museum.suwon.go.kr/progrm/progrmList.do>)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좌(https://learning.suwon.go.kr/lmth/02_pro/pro_02.asp)

○ 인문도시로서의 수원에 대한 평가

- 수원은 풍부한 인문자산을 갖추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임
- 수원시는 이미 일찍부터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인문학적 가치와 정신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왔음
- 향후, 화성행궁 등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학 관련 사업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수원인문기행특구’ 등), 발전 가능성도 높음
- 120만이 넘는 시민들의 연령층 또한 다양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인문강좌, 체험, 축제 등이 열리고 있음
- 반면, 대도시가 가지는 소외계층, 노숙자,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2) 강원도 춘천

■ 인문도시로서의 춘천

- 인구: 약 280,000명의 중도시
- 춘천은 다른 도청소재지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은 편이고 강원도 내 원주시 보다도 작은 도시임
- 규모에 비해 고등교육기관이 많은 편이고, 문화시설이 많으며, 수도권과의 인접성으로 문화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음
- 수려한 자연환경이 뒷받침이 되어 친환경도시, 힐링도시라는 이미지를 얻고 있음 (이영의, 2015: 111)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는 인문한국 ‘인문치료’ 어젠다를 10년 동안 연구하고 실천 활동을 병행하였고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인문도시’ 사업을 2회 연속 진행하여 ‘힐링 도시’로서의 춘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지원사업’ 진행

▼ 2014년: ‘춘천, 호반의 인문힐링도시’

▼ 2017년: ‘행복도시 춘천, 치유인문학을 구현하다’

■ **춘천 지역의 대표적인 인문자산**

○ 문화유산

- 근화동 당간지주, 방동리고구려고분, 봉의산성, 신매리 석실고분 등

○ 지역 문화자원

- 김유정문학촌, 의암 유인석묘역, 천전리 지식묘, 청평사 고려선원, 장절공 신승겸 신도비, 춘천향교, 혈거유지 등(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무형 문화자원

- 전설: 청평사 상사뱀전설 등
- 춘천의병

○ 한국전쟁 관련 유적지

- 소양로성당, 에티오피아벧 등

○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 남이섬 등의 인문자연 자원

○ 시립도서관, 평생교육원, 박물관, 미술관, 애니메이션 박물관 등의 인문자산

=> 전통적인 인문자산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문화까지 거슬러 갈 수 있지만 양적으로 풍부하지 않으나 남이섬, 소양호 등 호수를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 애니메이션 박물관, 연극제 등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유서 깊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음

■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축제강연·체험활동**

구분	내용
인문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인형극제: 국제적인 행사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음 • 춘천연극제: 1993년부터 시작된 춘천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축제 • 춘천애니타운페스티벌: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과 연계 • 춘천마임축제: 우수축제로 인정받았으며, 국제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음. 춘천을 대표하는 축제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국제제고(古)음악제: 춘천리코더페스티벌을 모태로, 22회를 맞이하는 유서 깊은 축제 • 춘천아트페스티벌 • 자라섬국제페스티벌: 15년 이상 동안 운영된 국제적 축제 • 김유정문학제 • 청소년 독서문화축제: 연1회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 축제 • 춘천가족음악축제: 2015년에 시작되어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치유영화제(한시적 운영) - 춘천의 경우, 지역 사회에 자리잡은 문화예술, 공연 관련 축제가 많고,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도 높음. 각광 받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 ‘힐링’을 주제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기획되었고, 일부는 춘천시의 성공적인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음
<p style="text-align: center;">인문강연 인문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반인문학: 일반시민대중강좌 • 춘천시립도서관 인문학강좌: 매달 바뀐 주제로 매주 강연 • 인문아카데미: 매월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연 •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양교육, 인문강좌 운영 • 한림대학교 평생교육원 인문강좌 운영 • 춘천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인문강좌 운영 - 춘천시민인문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인문강좌’: 강원대학교 공자학원에서 운영하는 유료 인문학 강좌 > 춘천인문학교: 강원민방(G1)에서 운영하는 유료 인문학 강좌 - 인문학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장기·단기·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기획되고,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도서관, 박물관, 문화공간 등에서 진행됨 - 일부 인문학 강연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문학강좌가 지역 내에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인문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있는 날: 월1회 열리는 가족체험 프로그램 • 빌도르프 인형극: 월1회 열리는 인형극 프로그램 • 도서관데이: 월1회 열리는 가족체험 프로그램 • 의병장 류인석 역사문화 기행: 제천시 인문도시 사업의 지원으로 공동 진행 - 인문체험프로그램은 주로 도서관과 박물관을 중심으로 열림. 강원대학교 인문도시 지원사업, 한림대학교 LINC+사업단이 지원함에 따라, 참여도가 더욱 높아짐 - 공공기관이나 인문도시사업 등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며, 호응도가 높음

■ 인문학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기관

기관	특징
도서관 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시립도서관: 정기적인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 열림. 고정적인 참여 시민 확보로 원활히 진행됨 • 춘천청소년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인문학 강연이 열림: 지역에서 자리잡은 대표적인 인문학 강연 진행 • 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독서, 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이용자 계층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 노인: 서예, 한글교실 등 교육
박물관 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춘천박물관: 정기적인 영화제 상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춘천시문화재단 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육성 지원 • 춘천 문화아카이브 구축, 아카데미 사업 • 다양한 형태의 정기공연, 기획공연, 전시회가 열림
춘천학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학 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으로 2019년 1월에 개소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 2014년 ‘춘천, 호반의 인문힐링 도시’, 2017년 ‘행복도시 춘천, 치유인문학을 구현하다’사업 수행.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교양교육, 인문강좌, 자격과정 운영), 강원대학교 공자학원 인문학강좌(유료 운영) • 한림대학교: 인문한국 생사학연구소(생사학, 웰다잉 교육과 강연), 한림대 LINC+사업단과 아시아문화연구소 공동주관‘춘천시민인문강좌’진행. 한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양교육, 인문강좌 진행 • 춘천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인문강좌 운영 - 도시 규모에 비해 고등교육기관이 많고, 대학의 기획과 지원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문강좌가 열리고 있음

8) 춘천시립도서관(장남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동네도서관, 신사우도서관, 소양도서관, 남산도서관, 서면도서관 외 다양한 사립도서관

9) <http://chuncheon.museum.go.kr/html/kr/>

10) 춘천시문화재단(www.cccf.or.kr/)

■ 자생적 인문학 모임

- 데미안 철학카페: 춘천데미안 서점에서 자발적으로 열리는 인문학토크카페(유료 운영)
- 춘천인문학카페, 그 외 다양한 독서모임(체크메이트, 춘천독서모임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됨(유료 운영)
 - 이는 관 주도의 인문학 강연, 인문주간 등을 통한 인문학 향유층의 저변 확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모임의 확대가 기대됨
 - 순수인문학과 실천인문학이 교차되는 지점으로, 건강한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SWOT

S(strength)	W(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규모에 비해 고등교육기관이 많은 편임 • 인문학 관련 사업을 기획,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풍부함 • 대외적, 국제적으로 알려진 축제가 많은 편임 • 수도권과의 거리가 가까움 • 많은 축제가 관광자원화 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함 • 지역 내에 자리잡은 인문학프로그램이 많은 편이고, 원활히 운영됨 • 수려한 자연환경. 인문+자연을 결합한 프로그램 기획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연령층이 다양하지 않음 •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문학의 향유층이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음
O(opportunity)	T(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음 • 유료 인문학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음 • ‘축제도시’ 또는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 • 수려한 자연환경, 경춘선과 연계한 ‘인문투어’ 개발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에 대한 ‘낙후’이미지를 제고할 적극적 방안이 필요함

○ 인문도시로서의 춘천에 대한 평가

- 춘천의 경우, 인문한국(HK), 인문도시사업의 진원을 통해 인문학 인프라를 구축, 확충할 수 있었음
- 기존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인문학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이 즐겨 찾는 효과를 거둠
- 젊은 층의 유입이 많으며, 강원도 내 도시 가운데 출산율이 높은 도시로서, 활기가 있음
- 인문강좌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고, 각 연령층에서 인문강좌에 대한 다양한 니즈가 표출되는 곳으로서, 향후 시민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향후, 춘천은 낙후된 강원도의 작은 관광도시로서가 아니라, 웰빙과 웰다잉을 아우르는 인문자산이 풍부한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알려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2014 인문도시지원사업 “춘천, 호반의 인문힐링도시” 결과 보고서)

(3) 경상남도 산청군

■ 인문도시로서의 산청

- 인구: 약 35,700명의 소도시
- 산청은 경상남도 서부에 위치한 소도시로, 빼어난 자연환경, 풍부한 인문자산을 갖추고 있는 도시임
- 도시 총면적의 약 80%를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도시 관광과 이미지 마케팅에 적극 도입하고 있음
- 인제대학교에서 산청 지역을 대상으로 2회의 ‘인문도시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 2014년: ‘열림과 소통의 치유 공간, 산청’
 - 2018년: ‘치유의 인문역사 공간 산청, 정신문화의 빛을 밝히다’

■ 산청 지역의 대표적인 인문자산

○ 국가지정문화재

- 단속사지 동삼층석탑, 산청 남사마을 옛담장,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산청단계 마을 옛담장, 산청 목면시배 유지,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산청울곡사 대웅전, 산청 조식 유적, 산청 전 구형왕릉 등.

○ 도지정문화재

- 권도 동계문집목판, 김인섭 단계일기, 남명조식유적지, 대포서원, 산청단성향교, 산청 덕천서원, 산청 도전리 마애불상군, 산청 문익점묘, 산청 배산서원, 산청 소남리 선사유적, 산청 용산서당 등

○ 등록문화재

- 산청 특리 근대 한옥

○ 무형문화재

- 전설: 남명 조식선생과 꺾지, 의구비 등

○ 도서관, 작은도서관, 테마파크, 박물관 등의 인문자산.

=> 산청은 매우 풍부한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이며, 빼어난 자연환경과 인문자산을 결합하여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축제·강연·체험활동

구분	내용
인문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산국악제전 • 남명선비문화축제 • 산청한방약초축제 • 지리산평화제 • 남명선비문화축제 <p>- 지역색을 반영한 동의보감, 치유와 관련된 문화축제가 많음</p>
인문강연 인문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청군 선비대학 • 한국선비문화연구원(남명학진흥재단)의 인문학강의: 인문학리더십, 공직역량강화, 한자교육 등 인문학 강의 진행. 인문학 강연과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영화인문학(산청교육지원청) • 인문학특강(산청군, 인제대학교 공동 주최) • 시낭송아카데미(2019-, 산청도서관) • 산청인문학콘서트(산청교육지원청) • 산청동의보감 마당극 상설공연 • (해설이 있는 기산 이야기) 기산국악단 토요일상설공연 • 우리동네밤마실(산청문화원 문화의 거리) <p>- 지역색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많으며, 고령층 군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콘서트, 마당극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은 편임</p>
인문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사예담촌마을 운영(전통한옥테마마을) • 산청동의보감촌 운영: 산청군은 동의보감촌과 연계하여 ‘치유의 숲’ 조성 • 산청한방테마파크 운영 • 한국선비문화연구원(남명학진흥재단): 선비전통놀이체험, 남명선비길체험, 서당교육 등 운영 <p>-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산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일조</p>

■ 인문학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기관

기관	특징
<p>도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청도서관 • 행복미소작은도서관 • 참포도작은도서관 • 숲속새마을작은도서관 등¹¹⁾ <p>- 현재, 산청도서관은 산청군보건의료원과 협력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향후 생사학, 웰-다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요청될 것으로 보임</p> <p>- 지역민의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특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p>
<p>박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청 허준박물관 • 산청 약초박물관 • 산청 한의학박물관(국내 최초의 전문한의학박물관)
<p>산청성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청성심원역사관: 한센인 생활시설인 성심원과의 소통을 통해 ‘질병, 고통, 화합, 치유’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 • 향후 지자체의 노력으로 성심원을 통해 치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p>교육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청간디마을학교: 2003년에 개교하여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건강, 자유, 사랑, 지혜’를 모토로 운영하는 학교(중등교육)
<p>대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제대학교: 2014 인문도시지원사업 ‘열림과 소통의 치유 공간, 산청’, 2018 ‘치유의 인문역사 공간 산청, 정신문화의 빛을 밝히다’ 선정되어 진행 • 경상대학교: 산청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종합대학. 산청도서관 등에서 인문강좌를 진행할 수 있는 강사 파견 등, 인적 교류

11) 작은도서관(www.smalllibrary.org/): 지역민들에게 지식·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도서관

■ SWOT

S(strength)	W(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려한 자연환경 • 치유적 환경(치유의 숲길) • 풍부한 인문자산 • 산청에서 가까운 종합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인문 자원 유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유입이 적고, 고령인구가 많음 • 인문학적 측면에서 인문자산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인문학 강연, 체험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고등교육 기관의 부족
O(opportunity)	T(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을 포용함으로써 다양성, 치유, 화합의 인문정신을 구현할 수 있음 • 시민단체나 시민의 연대로 산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 노인인구, 한센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도시’로의 성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 주도의 사업이 많으며, 자발적인 모임이 부족함

○ 인문도시로서의 산청에 대한 평가

- 산청은 인문자산이 풍부하며,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음
- 산청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고, 한센인 생활시설인 성심원이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임
- 대부분의 인문학 강연, 공연, 체험, 축제는 관 주도(산청군, 산청교육지원청 등)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현재 산청군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문 정신의 구현, ‘치유도시’로의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임
- 인문학적 치유생태계를 구현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충북 지역

(1) 청주

■ 의제화

- “청주(淸州), 명월(明月) 아래 인문(人文)의 청풍(淸風)을 품다”라는 거시적 의제 하에 진행(충북대학교, 2015)

■ 실시된 운영 프로그램 총계(3년간 2015.9~2018.8)

프로그램	인문강연	인문체험	인문주간	총계
횟수	134회	71회	101회	306회

■ 주요사업(3차년도)

구분	주요사업내용	장소
인문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금기를 벗보다 • 역사 속 전쟁 이야기 • 유희의 인간: 호모 루덴스 • 일상생활 속의 인문학 • 가족, 소통 그리고 인문학 • 자기 치유와 삶 • 행복학습센터 특강: 5060 뉴스타트 열린대학 • 인문체험·인문주간 사전강의 	국립청주박물관 서원도서관 국립청주박물관 청주시 평생학습관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청주시 평생학습관, 울랑동 작은도서관 충북대학교, 담양일대, 서원도서관
인문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으로 말하는 무성영화 다시보기 • 감성충전 버스킹 공연 • 감성충만 원데이 클래스1 캘리그래피 액자만들기 • 팝페라 공연<TUXEDO 4 MEN> 	충북대학교

구분	주요사업내용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성충만 원데이 클래스2 가족과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 감성충만 원데이 클래스3 가족과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 (전시) 감성가득 손글씨 공모전 • +인문체험부스(전통찹집, 전통팥찌, 마뜨료쉬까, 달고나) • +인문학으로 누정보기 • 박물관과 함께하는 인문역사기행 • 우리 지역 문학 기행 “한국 근대문학의 위대한 유산” • 러시아 동화 속 곰이야기&마뜨료쉬까 만들기체험 • 러시아 투바공화국 동화이야기&마뜨료쉬까 만들기체험 	<p>담양 담양 충북 서원도서관 서원도서관</p>
인문주간	+Performable 청주_몸으로 느끼는 인문학“	<p>개신문화관, 충북대 인문대 강의실 (충북대 교내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과 연계)</p>

○ 인문강연

- 인문강연의 당초 계획은 연간 30회 총 90회의 인문강연 진행이었으나, 1차년도 40회, 2차년도 45회, 3차년도 49회 총 134회의 인문강연을 진행
- 계획 대비 1차년도 133%, 2차년도 150%, 3차년도 163% 이행
- 청주시평생학습관, 국립청주박물관 등 인문도시사업 추진 단계에서 협력기관 증가 및 대응자금 증가로 당초 계획 대비 연평균 약 150% 강연 이행

○ 인문체험

- 당초 계획은 연간 4회의 인문체험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1차년도에 7회의 인문체험 진행 계획 대비 175%의 체험행사 진행
- 2차년도에는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30여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지역 축제에서 총 8일간(2016.09.01.~08) 총 34회의 인문체험 진행
- 3차년도에는 충북대학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청주시민과 함께하는 인문공감축제” 진행하여 연간 총 25회의 인문체험 프로그램 진행

○ 인문주간

- 인문주간 운영프로그램은 3개년 총 101개로, 1차년도 38개, 2차년도 29개, 3차년도 34개의 프로그램 운영

■ 총 소요예산

추진단계 기대예산	3억원	3천만원
최종단계 총예산	3억원	1억 2천 2백 9십만원

- 인문도시사업 계획 단계에서 3년 총 3억원의 국고지원금과 3천만원의 대응자금을 기대
- 추진단계에서 협력기관 증가 및 대응자금 증가로 3년 총 국고지원금 3억원, 대응자금 1억 2천 2백 9십만원(1차년도 1,800만원 + 2차년도 2,600만원 + 3차년도 7,890만원)으로 총 4억 2천 2백 9십만원의 예산 확보
- 연차별 협력기관 증가로 인해 최종 단계에서 기대 금액 대비 400% 달성

■ 프로그램 참여인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총계
참여인원	4,166명	5,585명(직지코리아 참여인원 제외)	7,838명	33,595명

- 2차년도 프로그램의 총 참여 인원은 21,665명으로 30여만 명이 참여한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과 협력하여 총 8일간(2016.09.01.~08.) 약 16,000명의 인원이 추가로 인문도시사업 인문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 프로그램 참여자 인적 특성

- 성별로는 인문도시사업의 총 참여 인원 33,595명 중 설문 참여자의 남성이 33.2%,

여성이 66.8%로 여성의 참여도가 훨씬 높음

- 분야별 인문강연, 인문체험, 인문주간에서도 고르게 여성의 참여가 높게 나타남

○ 연령대는 50대 이상 48.7%, 40대 17.8%, 20대 16.5%, 30대 10.7%, 10대 5.7% 순으로 나타남

- 분야별 가장 높은 참여율이 나타난 연령대는 인문강연 60대 이상 44.6%, 인문체험 40대 31.7%, 인문주간 20대 67.9%임

○ 참여횟수로는 인문도시사업의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응답자의 56.6%가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 2회 15.7%, 3회 9.8%, 4회 4.3%, 5회 이상이 13.4%로 나타남

■ 강사진 세부 분야

○ 여가, 교육, 역사, 어문, 예술, 사회, 공학, 의학 영역 망라

- 문학과 문화 분야 국어국문, 중어중문, 영어영문, 독일언어문화, 러시아언어문화, 프랑스언어문화, 문학(창작) 강사진의 비율이 27%로 가장 높았음

■ SWOT

S(strength)	W(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지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자산이 많고 고등교육기관 및 문화예술 시설도 비교적 많은 편임 • 인문학 관련 사업을 기획,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풍부함 • 저명한 시문학인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인이 많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청주시(도시지역인 청주시와 농촌지역인 청원군)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비대칭적 균형, 노년층 인구의 가파른 증가, 다문화가정의 압도적 비중 등의 사회문화적인 과제해결을 안고 있음
O(opportunity)	T(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 - 소규모 독서모임도 늘고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청주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이 개발 논리에 혼돈을 겪으며 공동체적 삶의 의미 훼손

(2) 제천

■ 의제화

- 역사문화·자연환경 기반 제천 : 글로벌문화창의(創意) 도시 구현

■ 추진 목적 및 내용

- 목적

- 사업을 통해 소위 역사문화와 자연환경 친화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소도시 제천이 인문학적 기반에 따른 가치 창조와 발산력을 강화할 경우,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글로벌문화 창의(創意)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 구체적으로 증명하고자 함

지역 문화·역사의 재발견	지역의 내재적 국제화 실현	글로벌 문화 창의·발산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個)와 공(公)의 가치 재인식 • 정신문화의 전통과 가치 공유 • 지역발 미래가치의 창의와 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가치를 육성할 수 있는 창의학습문화공간 확대 • 지역사회의 글로벌 빌리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문화적 아이덴티티 존중 • 생활 속에서 공생의 가치 확립 • 저변에서의 가치발산·문화융합

- 인문학적 자산 활용



■ 주요사업

구분		주요사업내용	주관기관	협력기관(붉은색)의 역할
인문특강	정규강좌 '제천시민 교양대학' (연2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個)와 공(公)의 가치 재인식 • 정신문화의 전통과 가치 공유 • 다문화공생주의와 지역의 내재적 국제화 외 	세명대학교	제천시립도서관 강사료지원, 강의실과 인력지원, 강의운영·진행지원
	찾아가는 인문 특강 '청풍인문로드' (연2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주의 특강 • 글로벌시대의 주체성과 지역의 의미 • 전통문화의 국제화 • 미래가치의 발굴 외 	세명대학교	제천노인종합복지관, 지역군부대, 강의실과 인력지원, 강의운영·진행지원
인문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기행 • 지역출신 명사초청 특강과 문화탐방 •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발굴 • 지역출신문인발굴과 문학기행 • 지역문화발굴체험 	세명대학교	세명대학교 부속·부설기관 제천시립도서관, 단양군청 (민송도서관, 지역문화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등)
인문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제와 학술세미나 • 시민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 • 청소년지역문화제 영상제작 경연 • '淸風人文'의 국제화(지원확대 필요) • '의병로드'의 발굴/의병학교운영(지원확대 필요) 	공공기관 세명대학교 세명대학교 세명대학교 세명대학교	세명대학교(학술세미나진행) 제천시립도서관(시민동원협력) 중고교협력 중고교협력 제천시청(정책구상, 예산지원)
인문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창생주의/다문화공생/전통문화의 국제화 등 국제학술세미나 • 청소년/다문화가정의 지역문화체험 	세명대학교	각 공공기관 행사진행을 위한 인력, 장소, 운영협력

○ 인문특강

- 인문특강은 제천 및 인근지역의 시민, 청소년, 군 장병, 노년층 등을 대상
- 주제는 역사, 문학, 철학, 언어, 예술, 사회, 다문화, 의식주 등
- 제천시립도서관이 주관하는 '시민교양대학'(연 20회)과 관련 제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찾아가는 인문학특강'(연 20회)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문축제

-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로서 각종 작품 전시, 문학 기행, 역사문화 탐방, 인문 브랜드 발굴 등 지역문화 자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프로그램
- 행사는 주로 봄과 가을에 진행될 예정

○ 인문주간

-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는 장으로서,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1주일 간 국제 학술세미나, 강연, 클래식 연주회, 북 콘서트, 전시, 역사문화 기행 등이 집중적으로 진행됨

■ 실적

연도	행사명	행사 소개	운영기간	참여자수	비고 (협력기관)
2014년	시민인문 교양대학	시민인문특강 : 연 20회	2014년 2월-12월	800여명	제천 시립도서관
	찾아가는 인문학	찾아가는 인문학 특강 2회	2014년 11월	500명	명락노인 종합복지관
2015년	시민인문 교양대학	시민인문특강 : 연 20회	2015년 2월-12월	1000여명	제천 시립도서관
	찾아가는 인문학	찾아가는 인문학 특강 8회	2015년 1월-12월	2000여명	복지관 군부대 관공서
2016년	시민인문 교양대학	시민인문특강 : 연 21회	2016년 2월-12월	1000여명	제천 시립도서관
	찾아가는 인문학	찾아가는 인문학 특강 6회	2016년 1월-7월	1300여명	복지관 군부대 관공서
2017년~ 현재	시민인문 교양대학	시민인문특강 : 연 20회	2017년 2월-12월	1000여명	제천 시립도서관

■ SWOT

S(strength)	W(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시는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지리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음. • 제천을 축으로 강원도의 영월, 경북과 접하고 있는 단양은 유서 깊은 다양한 역사문화유산과 시멘트산업을 기반으로 생활경제문화권을 공유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소외감과 낙후된 지역경제가 항상 문제 시되고 있음. • 노년층의 증가 및 광범위한 농촌지역
O(opportunity)	T(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바이오축제 및 영화제 개최 등 제천의 인문적 브랜드 개발 가능성 요소가 풍부함 • 자연경관을 이용한 치유 관광정책이 인문학과 접맥시킬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적 자산에 대한 고증 및 정체성 확립의 어려움

(3) 충주

■ 의제화

- 인문도시 충주, 중원문화 5,000년의 역사를 걷다

■ 추진 목적 및 내용

- 목적
 -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해 충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1년차도(주제: ‘충주, 삼국이 탐내던 중원역사의 1번지’)
 - 인문강좌 : (최근 순) 고구려, 중원으로 진출하다, 유려한 백제문화, 충북지역 항일운동 활동기, 신라 충주산성, 인쇄출판의 중심지, 중원의 역사와 선사시대 이야기, 중원의 역사(삼국시대 편), 중원의 역사(고려시대 편), 중원의 역사

(조선시대 편) 등

- 인문체험 : (최근 순) 목계강배 역사 알기 체험, 충주 문화유적 투어(충주테마), 충주 문화유적 투어(문화유산), 충주문화원 가야금 체험, 충주 문화유적 투어(물테마), 충주 석종사 절 역사 체험, 충주 수안보 온천 역사 체험
- 인문주간 : (인문학 콘서트) 중원의 역사 - EBS 강사 최대성

○ 2차년도 프로그램

구분	기관명	대상	강의 목적 및 내용
	프로그램명		
강좌 + 탐방	충주예총	매회 30명 총 5회 (충주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 예술을 장르별로 소개하여 전통이 주는 민족적 정서를 즐기고, 전통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소양 함양
	전통의 이해		
	금속공예의 이해	매회 40명 총 5회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철의 고장 충주를 재 발견하고, 철문화의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지역 문화의 미래 조망
	ANVIL		
	충주시 평생학습과	매회 50명 총 17회 (충주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가 간직한 문화자원을 보존, 발굴,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의 가치를 창조하는 시민 인문대학 운영 • 일반 시민에게도 ‘즐거운 시민인문대학’을 지향하여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 • 기존의 문화자원 및 생활문화를 지속가능하게 기획한 시민인문대학 운영
	소확행 인문학 여정		
	충주 학생회관	매회 35명 총 5회 (학생 및 충주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를 통해 중원문화를 이해하고 현장탐방을 통해 중원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 • 지역 생활권의 이해와 교감을 통해 중원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와 자긍심 고취 • 학생들이 지역 문화 전문가들과 만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중원문화 이야기			
강좌 + 체험	원광전통도예연구소	매회 15명 총 8회 (은퇴, 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이후를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손으로 빛는 도자기를 통해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공유
삶을 새롭게 빛다			

구분	기관명	대상	강의 목적 및 내용
	프로그램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적인 도자기 제작 기법과 다양한 형태의 도자기 체험을 하면서 도자기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진행
	(주) 튜즈	매회 10명 총 5회 5번 운영 (청소년 및 소외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고장에서 일어난 철의 역사를 재미있는 3D프린팅과 함께 창의적으로 배워보는 STEAM형 인문 역사교실
	철의 역사와 함께하는 창의역사교실		
	행복나무충북교육센터	매회 20명 총 10회 (아동,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형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민족관을 갖게 함으로서 세계 속에 자산과 지역사회, 국가 긍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
	도전! 역사탐험대		

■ SWOT

S(strength)	W(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산 충북의 북부권의 대표도시로서 수도권과도 접근성에 잇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도시, 경제활성화 논리에 번번이 뒤로 밀리는 인문정책의 부재
O(opportunity)	T(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들의 지역 역사문화적 자산에 대한 관심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적 자산에 대한 홍보 및 관광육성에만 신경 쓰며 미래지향적 가치창출에는 관심 적음

3 시사점

■ 수원, 춘천, 산청의 인문도시사업

- 전통적인 역사문화 인문자산이 풍부한 대도시 수원,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중도시 춘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인문자산을 가진 소도시 산청은 인문도시 육성을 위한 배경과 조건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음
- 각자의 지역 인문자산을 기반으로 인문도시 추구
 - 춘천은 호반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수원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민(이웃)인문학
 - 인문힐링과 치유인문학 추구
 - 산청은 인문자산과 자연환경을 결합하여 열림과 소통의 치유 공간과 정신 문화의 발현
- 단 SWOT 분석에서 약점과 위협요인의 보완 필요
 - 소외계층 프로그램 부족(수원)
 - 고령화로 노년층에 집중된 프로그램(춘천)
 - 보유한 자산에 비해 활용이 적극적이지 않고 관 주도의 많은 사업(산청)
- 참고로 그 외 지역적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인문도시 육성 사례
 - 군포시 : 경기도에서 면적대비 도서관이 가장 많은 문화도시에 기반하여 책과 함께 하는 인문도시 선포(2009), 다양한 도서관문화 사업 추진, 도서 정책전담 조직 설치(2010년 독서진흥팀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강화됨)
 - 제주도 : 2014년부터 3년 사업 이후 2018년부터 다시 사업 선정되어 5개 분야의 정신문화유산 '제주신화, 제주의 몽골문화, 타자의 영향, 해녀문화, 제주 4.3사건'을 중심으로 인문도시 제주 지향

■ 충북의 청주, 제천, 충주의 인문도시사업

- 직지를 포함 인문자산이 풍부하고 최근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청주, 그리고 의병, 한방 등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을 두루 보유한 제천, 오랜 중원문화를 자랑하는 충주
- 인문도시사업 선정과 평가 때문에 양적 프로그램 실적에 치중
- 지역적 정체성 및 미래지향적 인문가치추구의 내용이 부족
 - 각각의 지역적 특징과 자산을 기반으로 인문도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속에 지역적 정체성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단순 지식 전달의 강좌와 체험의 느낌
 - 청주는 개발논리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의 혼돈과 도농, 이주민간의 통합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제천의 인문도시사업은 자연환경 친화적 도시문화가 글로벌문화창의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나 이것이 인문도시와 문화창의도시와의 개념적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충주의 중원 역사문화 기반의 인문도시사업은 과거의 자산 홍보에 치우쳐 미래 지향적 가치창출에는 취약한 면이 있고 지자체도 기업도시, 경제활성화 논리에 치중하는 경향



충북지역 어우러짐 인문가치 육성

1 역사문화 영역

1) 역사문화 인문자원 현황

(1) 물적 역사문화 인문자원 현황

가. 충청북도 문화재 분포 현황

- 2019년 3월 현재 충청북도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등록문화재 29점을 포함해 212점, 충청북도 지정문화재가 문화재자료 91점을 포함해 591점으로 총 803점임

<표 IV-1>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현황

2019년 3월 현재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소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803	183	12	94	19	10	23	4	21	29	500	316	28	136	20	91	

- 국가 지정문화재는 보물이 94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천연기념물로 23점이 있음. 국보는 12점에 불과함
-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는 총 591점인데, 그 가운데 유형문화재가 316점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문화재, 즉, 문화유산은 주고 불교 관련 문화유산이거나 유교문화유산이며, 그밖에 고고학 및 역사문화유산이 대부분임
- 20세기 도시화가 발달하지 못한 충북지역이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는 29점에 불과한 실정임

나. 주요 문화유산

- 불교문화유산
 - 불교는 삼국시대 전래 이래 6세기 보은 법주사 창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음
 - 충북지역 불교문화유산은 충북 전체 국보 문화재 12점 가운데 10점이 불교문화재일 정도로 수준 높은 문화재는 불교문화유산임

<표 IV-2> 충북지역 국보급 불교문화유산

구분	명칭	지역	시대
국보	법주사 쌍사자석등	보은	통일신라
	법주사 팔상전	보은	통일신라
	법주사 석련지	보은	통일신라
	용두사지 철당간	청주	고려
	탑평리 칠층석탑	충주	통일신라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충주	통일신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충주	고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권74	단양	고려
	안심사 영산화괘불탱	청주	조선

- 보물 불교문화유산은 충청북도 전체 보물 문화재 94점 가운데 72점이 불교문화유산으로 압도적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문화재는 대부분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유산들임

- 충북지역 보물급 불교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고구려양식인 ‘청주 비종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임.
- 불교문화유산이 가장 밀집된 곳은 법주사로, 법주사 자체가 사적지로 지정된 데다 국보 3점을 비롯해 문화재로 지정된 유산만 총 44점에 이룸. 이는 전국 사찰 가운데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임

○ 유교문화유산

- 유교문화유산은 현존하는 문화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유교문화유산은 주로 조선시대에 생산된 것으로, 향교, 서원, 강당, 고택, 묘소, 사우, 서당, 영정, 누정 등임
- 유교문화유산 가운데 대표적인 인문자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향교와 서원으로, 향교는 현재 18개가 현존하고 있으며, 서원은 조선후기에 사액서원이 모두 54개였으나, 현존하는 것은 화양서원, 신항서원 등을 비롯해 25개이며 그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청주 신항서원과 체화서원, 검담서원, 음성 운곡서원, 충주 팔봉서원 등 5개에 불과함
- 유교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시설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인 강당, 서당, 서재 등과 같은 글집임.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충북지역 글집은 강당 9개, 서당 5개, 서재 4개 등임.
- 유교의 핵심가치 덕목은 효(孝)로, 그 때문에 효를 기리는 정려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음. 문화재로 지정된 정려는 곽훈 효자비(청주), 김덕승 효자문(진천), 청주 삼세충효문(청주), 양수척 효자비(청주) 등 8개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선비들의 풍류문화를 대표하는 인문자원은 누정임. 문화재로 지정된 누정은 청풍 한벽루(제천, 보물 제528호)를 비롯해 가학루(영동), 취묵당(괴산, 도유형 문화재) 등 모두 11개가 분포해 있음

○ 기타 문화유산

- 불교 및 유교문화유산 외에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12점 가운데 2점으로(단양 신라 적성비, 충주 고구려비), 이들 비석은 삼국전쟁이 충북지역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유산임.

- 2019년 7월 현재 충북지역에는 19개의 사적지가 있음
 - 불교 관련 사적지는 범주사, 흥덕사지, 미륵대원지, 송선사지 등 4개로, 각각 시대 및 장소별 핵심 불교문화유산임
 - 사적지 가운데 성곽은 청주 정북도 토성을 비롯해 상당산성, 단양 적성과 온달산성, 충주 장미산성 등 9개로 사적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산성의 고장 충북’의 특징을 잘 보여줌
 - 인물 관련 사적지는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괴산 송시열 유적,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등으로, 김유신, 송시열, 임경업 3명의 역사인물을 지역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무형문화재는 택견, 금속활자장, 주철장, 낙화장 등 4점이나, 세월이 흐를 수록 값을 더하는 문화유산인 만큼 지역의 핵심 인문자원이라 할 수 있음.
- 그밖에 충북지역에는 국가 민속문화재가 21점으로, 그 가운데 6점은 묘소 출토 유물이고, 나머지 15점은 고택임. 특히 최근 들어와 고택의 활용가치가 높아 지고 있는 만큼 지역의 핵심 인문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많음

(2) 인적 역사문화 인문자원 현황

- 인적 역사문화 인문자원은 지역의 역사인물로 유무형의 현재적인 인문가치가 내재된 인물임
- 역사인물은 해당 인물의 삶, 사상, 업적 등이 응축된 그 자체 인문자원이라 할 수 있음
 - 역사인물은 지역 브랜드, 관광, 축제, 문화콘텐츠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인문자원으로서 크게 쓰임이 있음
 - 역사인물에 대한 재조명과 현재적 기억은 곧 인문가치를 새롭게 발현하고 지역의 인문학 기반을 다질 수 있음
- 현재 충청북도의 역사인물은 3,007명 정도임
 - 역사인물이 가장 많은 시군은 청주시로 모두 544명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음성 522명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증평군으로 152명임
 - 역사인물은 주로 고려 및 조선시대 문무신으로 총 1,346명, 그 다음은 독립운동가로 모두 367명임

<표 IV-3> 충청북도 역사인물 분포 현황

	문무신	명현	충신	의병	독립운동가	근현대인물	기타	합계
청주	263	109	9	41	72	48	2	544
충주	198	38	4	12	27	35	31	345
단양	17	6	2	123	18	3	9	178
제천	165	11	0	171	22	34	9	412
음성	292	55	0	18	83	29	45	522
진천	58	29	9	13	18	25	3	155
증평	62	2	0	1	14	12	61	152
괴산	158	22	4	10	46	25	16	281
보은	60	71	0	15	17	45	16	224
옥천	73	7	1	28	50	27	8	194
영동	118	18	4	17	46	24	7	234
계	1,346	350	29	432	367	283	200	3,007

*자료: 충청북도 각 시·군지 인물편

- 최근 들어 새로운 역사인물이 발굴되거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증가되고 있음.
이는 지역의 인문가치를 새롭게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우 고무적임
 - 최근 여성 인물을 재조명하거나 새롭게 발굴하고 있음
 - 충북여성재단은 2014년도에 <<충북여성인물사>>를 편찬하였으며 충북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 동상을 건립 중에 있음
 - 충북학연구소는 세계 최초의 태교 서적인 <<태교신기>>를 펴낸 사주당 이씨와 조선 대표 여성 선비인 정일당 강씨를 충북을 빛낸 역사인물로 선정하여 재조명 하였음
 - 최근 새롭게 재조명된 역사인물은 여성 외에 예술인의 비중이 높으며, 예술인은 앞으로도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됨

- 새롭게 재조명되거나 콘텐츠로 활용된 문학인은 20세기에 살았던 신동문(청주), 권태옹(충주), 오장환(보은), 정지용(옥천), 류승규(옥천), 김득신(증평), 권섭(제천) 등임
- 무용가는 송범(청주, 현대무용), 송범춤사업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재조명되고 있음
- 음악가는 박팔괘(청주, 가야금병창), 정순철(옥천)
- 화가는 박승무(옥천)
- 언론인은 송건호(옥천) 등임

<표 IV-4> 최근 재조명되거나 인문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역사인물

지역	인물	생몰연대	주요 업적
청주	사주당이씨	1739-1821	세계 최초의 태교 서적 <태교신기> 저자
	서장옥	미상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
	신백우	1887-1959	독립지사, 교육가
충주	홍구범	1923-미상	해방기 탁월한 소설가
	류자명	1891-1985	독립운동가이자 농학자
제천	정일당강씨	1772-1832	조선 최고의 여류문인
	우덕순	1848-미상	안중근과 하얼빈거사 모의
보은	신미대사	1403-1480	세종대 한글 창제 공로
옥천	정순철	1901-1950	해월 최시형 외손자 1920년대 어린이운동 주도
	최시형	1827-1898	동학 2개 교주, 2차 동학농민혁명 지휘
	영규대사	미상-1592	임진왜란 때 승병 조직, 청주성 수복 공로
	박승무	1893-1980	동양화가, 근대 7대화가
영동	권구현	1898-1938	시인, 평론가
증평	김득신	1754-1822	조선후기 최고의 시인
진천	강세황	1712-1791	화가. 김홍도 스승, 묘소 진천
	이하곤	1677-1724	문예 비평가, 당대 최고의 도서관인 만권루 건립
	김덕송	1373-1448	효자. 세종이 직접 쌀 등을 하사함 삼강행실도 수록, 조선 효자 상징

지역	인물	생몰연대	주요 업적
괴산	이문건	1494-1567	최초의 육아일기 <<양아록>> 저술
	안숙	1863-1910	한일합방에 분개, 자결
	홍명희	1888-미상	근대 최고의 문학가
	송시열	1607-1689	조선 최고의 사상가
	권동진	1861-1947	동학 접주, 민족대표 33인
	이능화	1869-1943	최초의 한국학자, 민속학자, 불교학자
단양	하동규 (동산스님)	1980-1965	조계종 초대 종정, 불교정풍운동 주도

*자료 : 충청북도, 『충청북도 열뿌리 찾기사업』, 2012, 139-140쪽.

(3) 충북 대표 100대 인문자원(부록 참조)

- 문화전략의 일환으로 충북의 인문가치가 녹아 있는 충북 대표 100대 인문자원을 선정함
 - 대표적인 충북의 인문자원을 선별하여 충북 인문학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문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함
 - 충북 대표 인문자원을 통해 충북 고유의 인문유전자를 찾아냄
 - 충북 고유의 인문자원에 대한 긍정적, 호의적 이미지 제고 및 지역 마케팅으로 활용
- 충북 대표 인문자원 선별기준
 -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문자원을 6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
 - 6개 분야 : 충북상징, 지리 및 자연, 역사, 사회 및 생활 분야, 종교·신앙, 예술
 - 충북상징이란 ‘충청북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임
 - 지리 및 자연 상징은 단순한 자연자원이 아니라, 자연자원에 대한 기억·숨결·이미지 등이 함축된 것으로 인문자원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음

○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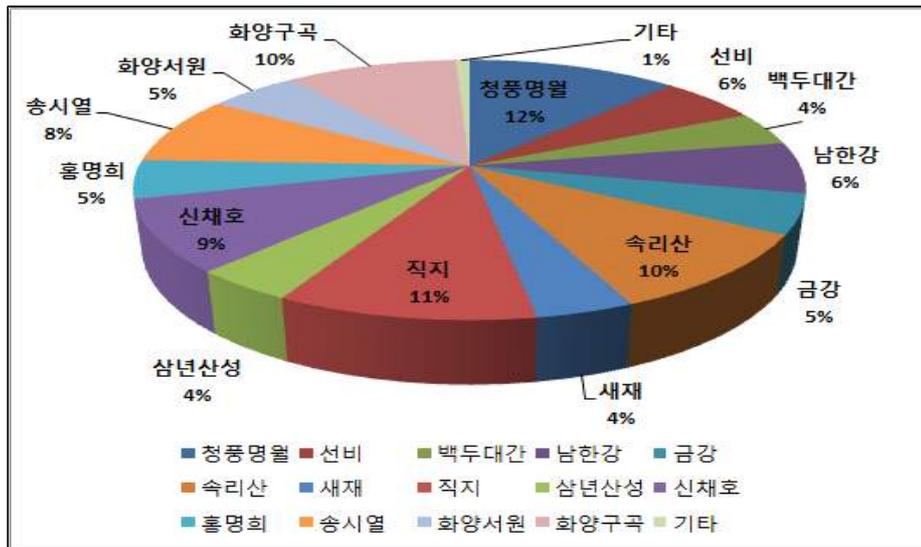
- 충북 고유의 원형질로 충북을 대표할 만한 인문자원
- ‘충청북도’라는 지역의 장소성과 인문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문요소를 지닌 자원
- 창조적인 문화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
- 인지도가 높거나 높은 잠재력을 지닌 것

○ 선정 방법

- 충북도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2013년 조사, 109명)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100대 문화상징 선정(부록 참조)

○ 100대 문화상징 가운데 응답 비율이 높은 10대 문화상징

청풍명월	직지	속리산	화양구곡	신채호	송시열	남한강	선비
91	79	75	74	67	63	48	43
12.1%	10.5%	10.0%	9.9%	8.9%	8.4%	6.4%	5.7%
화양서원	금강	홍명희	삼년산성	백두대간	새재	기타	계
39	37	36	31	31	30	6	750
5.2%	4.9%	4.8%	4.1%	4.1%	4.0%	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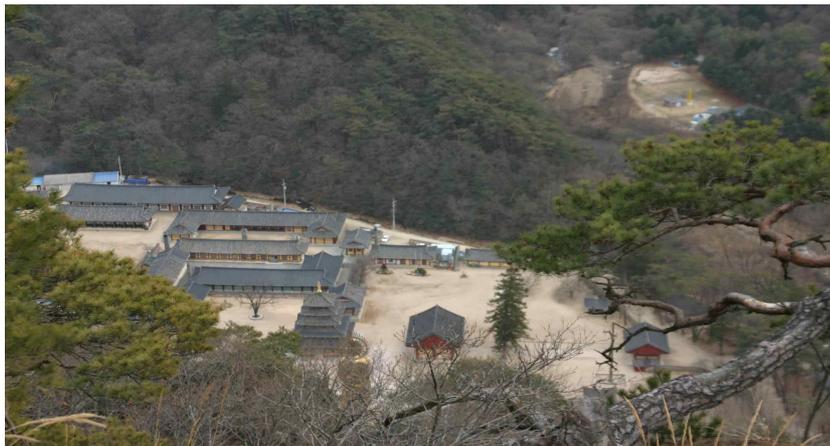


자료 : 김양식, 2013.

2) 역사문화 인문자원을 활용한 인문도시 만들기

(1) 역사문화 인문자원을 활용한 어우러짐 인문도시 조성방향

- 역사문화 인문자원은 모두 과거-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변화되는 것으로, 그 자체 시간과 공간이 어우러진 결정체이자 그것이 인간을 주체로 한다는 측면에서 인문학적 토대를 이루고 있음
- 충북지역의 핵심 인문자원이라 할 수 있는 역사문화유산, 즉, 문화재는 다른 어느 자원보다 지역의 인문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인문학을 활성화하며 그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자원으로 접근해야 함
- 국가 지정문화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유산은 종교적 관점을 떠나 보편적이고 통시적인 가치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초월적인 종교 및 철학세계와 접맥하여 인문가치를 제고해야 함
 - 현재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44개에 이르는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법주사는 2018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충청북도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다양한 체험 및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의 인문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꾀해야 함



<그림 IV-1> 인문학의 보고, 법주사 전경

-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직지 역시 지금까지의 ‘현존하는 금속활자본’이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직지의 내적 인문가치에 주목, 명상·창조기술 등과 같은 21세기 현대인의 의식세계와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적 가치가 있는 유교문화유산이 많이 분포해 있으나, 가치 활용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충북 각 시군에 분포해 있는 18개 향교는 몇몇 향교 외에는 행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향교가 가지고 있는 인문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음
 - 서원 역시 행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화양서원·신항서원·팔봉서원이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민에게 개방되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유학(성리학)이 지향하는 가치덕목은 인의예지충효인데, 이들 덕목은 핵심 인문가치들임. 따라서 유학의 인문가치를 현대적으로 승화시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인문도시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역사인물은 매우 중요한 지역의 인문자원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조명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근현대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역사인물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재조명하여 자원화해야 함. 이들은 자료도 풍부할 뿐 아니라, 시각화와 스토리텔링이 용이하므로 앞으로도 적극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

(2) 역사문화 인문자원을 활용한 어우어짐 인문도시 조성전략

- 역사문화 인문자원 가운데 충북의 가치가 집약된 100대 인문자원은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자원으로, 무엇보다 이들 자원의 가치를 집중 발굴하고 인문콘텐츠를 개발하여 인문도시 조성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됨
 - 충북을 대표하는 인문자원으로 100개를 선정하는 것(부록)은 일종의 문화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집중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은 없었으며, 단지, 개별 분산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총체적 발전을 꾀하지 못하였음
 - 앞으로 상호 연계 개발을 통해 지역의 인문기반을 강화하고 특정 인문자원을 중심으로 인문플랫폼을 구축,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
 - 100대 인문자원은 충북의 문화유전자가 내재된 자원으로 충북의 정체성을 대변할 뿐 아니라, 내재된 가치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산업 및 관광·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100대 인문자원은 충북 브랜드 가치와 홍보 및 C.I.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마케팅 자원으로 유용하며, 청풍명월, 화양서원 등 대표적인 10대 문화 상징의 경우 충청북도 차원에서 인문학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인문도시 구축 자원으로서의 역사문화유산 활용전략과 예시
- 인문도시는 사람 중심의 도시,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인 만큼, 시공간 속에서 사람에 의해 남겨진 여러 형태의 역사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해야 함
 - 역사문화유산 활용은 곧 지역의 인문가치를 기억하고 확산하는 것이자 재창조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이미 검증된 국보 및 보물급 문화유산과 충북 대표 100대 인문자원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특히 충북의 역사문화적 인문학 특성상 증용, 조화, 융합 등 어우러짐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이런 특성을 가진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인문도시 만들기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함
 - 더 나아가 어우러짐 인문학의 관점에서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그것을 재해석하여 시간을 뛰어넘는 삶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 충주탑평리7층석탑은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고구려·백제·신라인을 하나로 통합하여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한 불교적 상징으로, 남북한 통일 지향의 역사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충주를 통일인문도시로 상징화하는 것도 바람직함
 - 직지심체요절은 난세에 새로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백운화상의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불서로, 그것은 고려말의 시대적 등불이자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현대인과도 어우러질 수 있는 미래가치를 담고 있음. 즉, 직지는 과거-현대-미래가 깨달음으로 어우러진 핵심 인문자원의 하나로, 직지를 기반으로 한 명상 인문도시를 추구해 볼 수도 있음

- 청주 출신 사주당 이씨가 세계 최초의 태교 서적으로 저술한 <<태교신기>>는 단지 태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어우러짐, 부모와 태아의 어우러짐, 세대의 어우러짐 미학이 깃들여 있는 책으로, 사주당 이씨와 <<태교신기>>를 활용해 청주를 이런 미학을 지향하는 태교 인문도시로 육성할 가치가 있음



<그림 IV-2> 세계 최초의 태교 서적 <<태교신기>>

- 난계 박연은 세종대 정악을 집대성한 인물로, 정악의 기본 가치는 음악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정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예술적 수단인 바, 영동을 단지 난계 박연이 출생한 고장이란 이미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화통하고 행복해지는 소리의 고향으로 이미지화하여 인문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2 자연환경 영역

■ 자연환경과 인문도시

- 생태주의적 인식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자연을 되찾고 자연의 가치를 소중히 인식하는 것으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바라는 실천적 행동을 의미함(김경복, 2016)
-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연환경 분야에 대한 인문도시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군림·이용하는 대상으로의 인식이 아니라(이영근, 2010, 한겨레 칼럼)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공존·어우러짐에 초점을 둠

■ 환경 교육 중심의 미호천 만들기

- 환경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학교 교육과 친환경 체험을 통해 감수성 및 실천의식을 배양하도록 하는 사회 교육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구축해야 함
- 미호천은 금강 상류의 지천이자 충북지역의 중심 물길로 도시지역과 인접해 있지만 자연하천의 형태적인 특징과 원시적인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래하천이며, 이 모래는 수질정화 역할을 함(김정애, 2017)
- 미호천을 바라보는 시각이 산업단지에 의한 각종 오·폐수(산업폐수, 농축산폐수) 등 더 이상 인간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이제는 발견되지 않지만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발견되었던 과거의 청정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민·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
- 충북지역에서 물환경이 가장 나쁜 미호천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친환경 행동 실천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
 -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교육포털사이트 운영(<http://www.keep.go.kr>)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운영(환경부)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교육 운영 프로그램
 - 푸른환경지킴이(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 경기도환경교육센터(2015년 설립)
 - (사)환경교육센터(2000년 설립)
- 현재 충북지역에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지만, 충북의 주요 물길인 미호천 유역의 물환경 현황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교육을 통해 오염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물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으로까지 연계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
- 미호천 유역 내 주민들이 함께하는 인간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지역 만들기가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른환경지킴이 환경교육 프로그램 응용 및 확대가 필요
 - 대상을 유역 내 모든 주민으로 범위 확대(현재, 초·중학교)
 - 국가 및 타 지역 교육자료를 활용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 현장 중심의 체험활동 증대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한 DB 구축
 - 체계적인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환경모니터링
 - 오염하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제초 작업 등 실천활동 / 현수막, 어깨띠 등을 활용한 홍보
 -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등

■ 생태, 문화, 예술, 힐링의 하천 만들기

- 인공경관과 비교 시 하천경관이 긴장, 불안, 우울, 분노, 곤란, 피로를 감소시키고 활력이 상승하여 기분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짐(김정호 외, 2013)

○ 하천경관 사례

- 경기 오산 : 문화와 낭만이 흐르는 힐링 공간

- 오산천 : 식수로 사용할만큼 맑고 깨끗한 냇가였지만, 급격한 사업화와 각종 개발로 인해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질개선 및 생물서식처 향상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 - 둘레길, 남촌소공원, 문화예술회관, 습지생태원 정원화, 생태교육 시설, 생태복원 서식처 및 수변공간 조성
- 연간 놀이객 : 17만명

- 경북 영주 : 시민의 삶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하천

-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도시 기능을 강화해 전통적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전략 사용,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여 생물서식처 기능을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 마련(“힐링 중심, 행복영주” - 소백산 자락의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힐링중심의 영주)
- 남원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 “무병장수 행복강, 남원천”을 슬로건으로 건강한 삶, 지역특산물, 소백산의 아름다움과 선비정신의 얼을 깨달을 수 있는 친환경 공간 - 사람의 접근을 최소화하며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 축제마당(공연마당, 쉼터, 산책로 등), 다목적광장, 건강잔디마당, 자연학습장, 술경지숲휴게소(술경지숲을 주제로 한 쉼터) 등으로 구성
- 죽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생태체험, 생태탐방, 휴식 등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 - 생태습지, 어도, 저수로변 어류서식처, 유지용수 유입 등 생태공간과 영주의 관광명소와 연계

- 경북 예천 : 안전문화 정착 및 하천 힐링공간 조성

- 우리 생활 주변의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등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안전문화의식 고취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추진
-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역사와 문화 및 하천환경을 고려한 복합정비사업, 자연석쌓기, 도호자마당, 잔디블럭주차장, 음악분수, 광장과 오토캠핑장, 자전거도로 등으로 구성

- 대전 유성 : 머물며 치유하는 하천 - 꽃, 물, 숲이 이루어지는 테마가 있는 하천

- 꽃이 만개한 꽃향기가 가득한 하천, 대학 주변의 아름다운 청춘이 머무는 젊은 하천, 온천과 연계된 건강하고 활기찬 기운과 물이 주는 향기와 이미지 체험을 통한 삶의 지혜를 배우는 하천, 연구단지를 통하는 푸르른 숲터널길을 통해 심신을 달래고 치유와 휴식이 있는 공간 조성

- 경남 김해 : 국제 슬로시티 - 기업+문화+생태

- 슬로시티(slow city)는 전통문화와 자연을 잘 보호하면서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적 운동
- 화포천습지를 국가습지보호구역·국가생태관광구역으로 지정, 연지공원과 해반천·울하천 등 생태환경 조성, 가야사복원을 비롯해 송선전 제례, 분청도자기, 남명 조식, 가락오광대 등 역사문화의 전승과 보존, 김해문화의 전당, 김해서부 문화센터와 같은 문화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 물순환 선도도시, 경관디자인 개선, 도시숲 조성 등 쾌적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였고, 회현당과 같은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비롯해 산딸기·진영갈비·봉하오리쌀 등 지역
- 특산물 활성화로 지역 경제여건을 개선
 - ※ 국제 슬로시티 : 전남 신안군(중도), 전남 완도군(청산도), 경남 하동군(악양면), 충남 예산군(대흥면), 경기도 남양주시(조안면), 전북 전주시(한옥마을), 경북 상주시(함창읍, 이안면, 공검면), 경북 청송군(부동면, 파천면), 강원도 영월군(김삿갓면), 충북 제천시(수산면), 충남 태안군(소원면), 경북 양양군(석보면), 경남 김해시(봉하마을, 화포습지 생태공원), 충남 서천군(한산면)

- 충북 괴산 :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안전한 청정하천

- 재해예방사업으로 성황천 및 고마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달천 고향의강 정비 사업,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서민밀집지역정비, 소하천정비사업 등 추진하였고, 환경과 연계한 문화, 관광 인프라 연계
- 산막이옛길 : 달천상류 괴산댐 주변에 위치하여 하천과 주변 환경을 활용한 관광지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산, 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자연미 재현

- 충북 제천 : 물, 놀이, 치유가 있는 하천

- 정서적 안정을 위한 하천 조성(하소천)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공모 - 가동보 4대소, 휴식 공간을 겸한 원형 산책길, 수경분수, 경관조명 등으로 구성, 시내를 관통하는 하소천의 친수환경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휴식, 놀이가 있는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드는데 기여

○ 타 시도 사례와 비교 시 충북의 하천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 축제, 쉼터, 휴게소, 다목적광장, 자연경관 감상, 지역 역사문화 및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 부분이 취약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충북이 정신적인 안정, 힐링의 공간으로 인간의 자연이 어우러지는 하천환경을 조성

- 문화·예술의 도심하천 무심천(청주시)

- : 무심천에는 체육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지만 여유있게 쉬거나 무심천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부족
- : 축제공간을 조성(또는 체육공원 공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연, 음악분수 등의 볼거리를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힐링할 수 있는 하천
- : 도심에서의 용이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카페거리, 산책로 중간중간 휴식할 수 있는 쉼터(휴게소),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하천
- 생태·문화의 남한강(단양군)
 - : 단양군은 월악산국립공원과 소백산국립공원이 인접해 있고, 가대리 남한강 인근에는 기존의 고수동굴, 단양생태체육공원, 도담삼봉, 다누리아쿠아리움, 만천하스카이워크, 덕천리마을체험관 등의 관광지들이 위치
 - :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만큼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이 양호한 자연 경관을 감상하면서 쉴 수 있도록 남한강 주변, 수변에 쉼터, 휴게소,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체험, 학습, 감상할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하천
- 자연 힐링의 옥전천(제천시)
 - : 옥전리 옥전천은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이 양호하므로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하천
 - : 상류에는 계곡, 인근에는 송화사, 캠핑장, 수련원이 위치하며, 주변 인프라를 활용한 그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를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등산로, 둘레길, 자연학습장 등을 통해 수려한 자연환경을 통한 힐링 하천

■ 건강, 휴식, 힐링의 댐주변 만들기

- 댐은 용수공급, 전력생산, 홍수조절 등의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친수, 생태,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지역사회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서 댐 관리 패러다임 전환(K-water)

○ 댐주변공간 활용 사례

- 강원도 소양강댐

- 우리나라에서 저수용량이 가장 큰 댐
- 전시실의 댐에 관련한 정보들과 주민친화공간으로의 물문화관(워터갤러리, 워터클래스 등)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하며, 유람선, 청평사, 청평사 계곡, 스카이워크 등이 관광자원 분포
- 행복 페스티벌 : 댐 개방, 주민 화합을 위한 콘서트 등

- 전남 주암댐

- 광주와 전남지역의 식수원으로 호반도로를 끼고 있으며, 물문화관, 송광사, 고인돌 공원 등을 연결하여 아름다운 조계산과 모후산 자락을 이어 자연속의 그림 같은 코스를 연계
- 2011년부터 8년 동안 조류경보 미발령, 매년 만·관·군 합동으로 홍수기 전 오염원 사전 점검, 저수구역 내 육상쓰레기 수거 등 지역사회와 대청결 운동 시행
- 가까운 상사호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조절지댐 환경정비, 호수 경관과 어울리는 드라이브 코스, 댐 정상 및 하류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편안한 휴식처 제공 : 맑은 물,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지역민과 상생하고 발전하는 주암댐
- 순천만, 송광사, 낙안읍성, 선암사 등 관광자원 분포
- 행복 페스티벌 : 주민과 함께하는 농악 경연 대회, 국악 한마당, 생태 투어 등

- 충북 충주댐

- 이른 아침, 안개를 모금은 충주호의 모습은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시킬 정도로 경관이 아름다움
- 물박물관, 호반 도로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충주댐 우완댐으로 조성된 벚꽃 길, 모노레일, 케이블카, 유람선뿐만 아니라 구담봉, 월악산국립공원, 수양개 선사 유적지, 단양팔경, 청풍 문화재단지 등 주변 관광자원 분포

- 충북 대청댐

- 북쪽과 남쪽으로의 드라이브 코스, 전망대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고, 좌안에 위치하고 있는 물문화전시관, 특히 잔디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볼거리,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 제공
- 메타쉐콰이어 숲속쉼터의 산림욕과 여유로운 휴식을 통한 힐링, 가지작색의 아름다운 풍경과 낭만이 있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편안하고 쾌적한 친환경적 휴식 공간
- 주변에 로하스가죽공원 워터캠핑장, 청남대, 현암사뿐만 아니라 다솜길 미로원, 이현동 거대 역사 습지, 생태 부유 습지 등 체험 학습 공간도 위치
- 행복 페스티벌 : 직거래장터, 아름다운 금강의 민물고기 전시회, 푸드트럭, 트리아트, 거리 마술쇼, 농특산품 직판장, 가요제, 음악회, 사생대회, 댄스대회 등

- 충북에는 전국에서 2, 3위 규모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 2개의 다목적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변공간은 레크리에이션, 문화행사, 수상활동 등이 이루어져 도심과 차별화된 깨끗한 힐링 공간으로 활용가능하므로 2개의 댐에 휴식과 힐링이 가능한 댐주변 만들기
 - 풍부한 수량과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의 충북
 - : 잔디광장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 피크닉, 놀이 및 체험학습, 친목 도모 등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
 - : 자연생태공원으로 현장체험 학습으로 교육이 가능한 공간
 - : 야외무대 시설로 자연과 인간이 어울릴 수 있는 페스티벌로 기분 개선이 가능한 공간
 - : 전시관을 통해 각종 미술전시 및 문화행사가 있는 공간
 - : 메타쉐콰이어 숲속쉼터, 전망대, 유람선, 케이블카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편안하고 쾌적한 힐링이 가능한 공간

3 도시공간 영역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 공간¹²⁾

- 사회적 약자란?
 -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으로서 성, 인종, 연령, 장애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경향성이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도 넓은 의미의 사회적 약자로 정의하고자 함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은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불편함 없이 도시에서 거주, 이동, 독립적인 생활 및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것임
 -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증진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그 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8년 「건축법」 시행령,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이 관련 법규들임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택이나 편의시설 제공, 나아가 쇼핑이나 장보기 등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타인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어우러짐 인문 공간 구축이라고 볼 수 있음
- 임산부, 고령이나 장애로 활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웃과의 어우러짐 인문학으로 세대 교류나 문화 교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역사 문화 공간 구축도 필요함

12) 이 부분은 (김현식, 2003; 박신영 외 3, 2008; 안건혁, 2001; 오금호 외 4, 2013; 오용준, 윤갑식, 2012; 장성수, 권영수, 2008) 참조

■ 인문적 관점(어울림)에서 본 도시공간 해석¹³⁾

○ 코엑스 광장

- 삼성역 무역센터 지역의 광고규제를 풀어서 서울의 타임스퀘어로 조성하는 사업은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벤치마킹한 사례로 대형 광고판을 만들어서 도시 경관을 연출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뉴욕의 타임스퀘어는 격자형 도로망으로 이루어진 맨하탄에서 과거 인디언이 다니던 길을 보존한 대각선의 브로드웨이와 직선가도가 만들어 낸 삼각형 블럭지대로 보행자의 시선이 사방을 조망할 수 있어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공간을 연출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삼성동 코엑스 주변의 타임스퀘어는 대로변을 중심으로 한쪽 면만 광고를 연출하여 중심점이 만들어지지 않아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같은 역동적이고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는 중심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랜드마크 건축물과 주변 가게들이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규모의 활성화 된 광장이 필요한 데 이는 일정 도시의 장소성(Sence of Place)을 대표하는 특성이 있음
- ‘장소’가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머물며 형성되는 관계성과 역사성을 갖는 곳이라면, 삼성동 코엑스 주변의 쇼핑몰과 같은 ‘비장소(non-places)’는 잠시 거쳐 지나가는 환승의 장소이자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을 말하는 데 사람들이 정착하고 서로 교류하는 곳이 ‘장소’라면, ‘비장소’는 통과하고 소비하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곳임¹⁴⁾

○ 광화문 거리

- 과거 군주시대나 중앙집권시대에 도시의 상징은 대로와 축을 강조하였고 이곳에서 군사열병식이나 대규모 집회 및 행사가 이루어졌음
- 나폴레옹시대 파리 대개조 계획을 통해 형성된 루브르 박물관- 콩코르드 광장

13) (유현준, 2019)에서 공간에 대한 풍부한 인문적 사유를 얻을 수 있음

14) 마크 오제(Marc Augé, 2009)는 이동의 수단이 되는 공항, 기차역과 같은 교통수단의 대기장소 또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간 관계의 부재를 특성으로 지닌 장소들을 ‘비장소’라 부를 것을 제안하였음

- 개선문으로 이어지는 역사축은 파리의 척추가 되는 중심공간이 되었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의 워싱턴 몰(링컨기념관- 워싱턴 기념비- 국회의 사당)도 이와 유사한 개념임
- 이순신 동상-세종대왕 동상-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축도 앞서 프랑스 파리와 미국의 워싱턴 D.C.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거대한 대로와 좌우대칭이 만들어 내는 공간은 인간 개개인의 인간적인 접촉을 끌어내기보다는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구조라고 볼 수 있음
- 광화문광장의 경우, 축선상의 양쪽으로는 S문화회관, 미국대사관, KB빌딩 등 대형 오피스 건물이 입지하는 슈퍼블럭을 형성하고 있어 다양한 접촉이 일어나는 인간적인 거리라고 할 수 없음
- 과거 이곳은 시장이 열리고 사당패들이 공연도 하고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구경하고 놀았고, 김홍도의 그림을 보아도 씨름을 하면 주변에서 아이들이 엿을 파는 등 소통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광장 문화가 있었음
- 다양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걷고 싶은 거리, 다양한 접촉이 일어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대로의 폭을 줄이고 이곳에 상업, 위락, 업무 등 복합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정하게 블록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청주 성안길

- 청주 시내에서 가장 변화한 곳인 성안길은 과거 청주읍성(淸州邑城)의 북문(北門) 자리에서 남문(南門) 자리에 이르는 큰길로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시(淸州市)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로서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비슷한 청주상권의 중심지임
- 이 가로는 용두사지 철당간의 뒷길로, 무심천 근처의 청주 지하상가 입구에서 청주 육거리 시장에까지 이름
- 조선 시대의 임진왜란 때 왜구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조선군의 의병장 조헌이 탈환한 청주성이 바로 이 지역임

- 이 곳은 젊은 층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축제, 행사, 영화와 드라마 촬영 (예로 영화 베테랑, 덕혜옹주와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 장소로도 유명함
- 그러나 젊은 층을 위한 상업적 소비적 장소가 아니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랜드마크가 부족한 것이 단점임



자료 : 카카오맵 로드뷰(<https://map.kakao.com/>)

<그림 IV-3> 성안길 전경

○ 청주 수암골

- 청주의 마지막 달동네인 수암골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난 건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진행된 2007년부터인데 페인트가 벗겨져 얼룩덜룩한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 현재 70여 채의 집에 40여 채의 벽화가 있는 벽화마을로 탄생함
- 2009년도 SBS 드라마 카인과 아벨, 2010년 KBS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2011년 영광의 제인 등의 촬영지로도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 명소로 거듭남
-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커피숍 등 일반 음식점 위주의 획일적 개발로 폐업과 공실률이 높음
- 기존 마을이 축소·박제화해 주민 수가 줄면서 지역에 활기도 떨어지고 있고 외지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지만, 주차와 교통사고 위험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음
- 획일적 공간계획보다는 다양한 시설을 유도해 지역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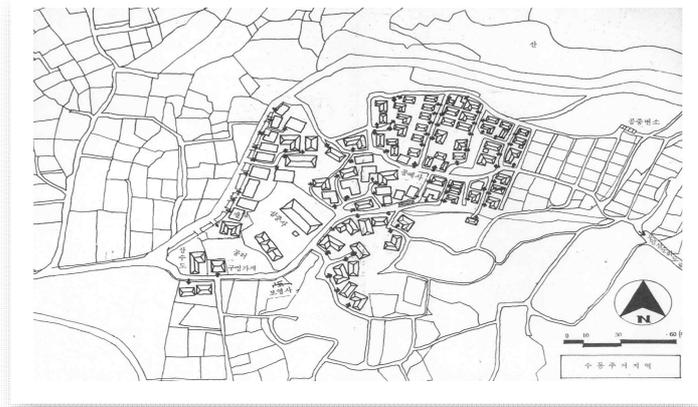
- 중대형의 카페 및 상업시설이 입지하면서 기존의 원주민들은 다시 외곽으로 등지 내몰림 현상(Gentrification)이 일어나고 있으며 공동체를 형성한 골목길이 없어지면서 역사적 장소성이 흐릿해지고 있음



자료 : 카카오맵 로드뷰(<https://map.kakao.com/>)

<그림 IV-4> 수암골 전경

- 물리적 형태는 사회적 행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을 인식하고 거주자들의 행태를 최대한 고려하여 커뮤니티 의식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
- 이러한 이웃과의 친밀관계의 형성은 주거지역 내의 골목 및 가로 형태에 의하여 그 범위가 결정됨
- 골목의 형태가 나뭇가지형 또는 막다른 골목의 경우 소집단의 중심장소로 이웃 주민들의 사회적 접촉은 일자형이나 격자형의 가로형태보다 더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는 오늘날 도시주거지역에서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적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인문도시로서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임



자료 : 이경기(1985), 都市 庶民層 住居地域에서 物理的 環境과 社會的 行態의 相關性,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그림 IV-5> 수암골 배치도면



충북 어우러짐 인문도시화 기반 구축

1 방향

■ 성찰적 환경조성

- 인문정신이란 실적 위주의 사업이 아닌 사유, 성찰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
 - 기존 사업은 광범위, 포괄적인 성과 위주
- 인문적 가치의 점과 점의 연결
 - 어우러짐 인문학 추구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산재된 어우러짐 인문가치의 공통, 유사 요소를 점과 점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인문학의 저변 확대와 공감의 인문학을 만드는 것임
 - 광역 차원의 어우러짐 인문도시 추구는 선택과 집중의 가치지향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새롭게 조망하여 특성별로 연결함으로써 지역적 연대감 추구

■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충북 지자체의 시도 모색

- 충북 어우러짐 인문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을 적극 활용
 - 2019년 인문도시지원 신규 사업공모는 없고 내년부터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될 예정이므로 이와는 상관없이 지역의 인문대중화, 인문정책, 도민 및 지역의 인문적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사업 기획은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지역 지자체 및 대학, 연구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재단에서는 이미 한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타 지자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 연속 선정을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연속 선정의 가능성은 충분함
 - 이에 대한 지자체 및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가 어떻게 협력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

- 또한 충북의 경우 선정된 청주, 충주, 제천 이외의 지자체에서 사업을 기획하여 신청해 볼 수 있음
- 그리하여 지역의 어우러짐 인문문화가치와 자산을 발굴하여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소외계층 치유 프로그램 등에 녹여내어 향후 대학, 지자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신청을 모색

2 행·제도적 인프라 구축

■ 행정력의 필요성

- 인문정신, 인문가치를 도시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문학 진흥조례’, ‘인문학교육 진흥조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조례’, ‘인문학도시 진흥조례’ 등의 제정이 요청됨
- 성공적인 인문도시의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력의 뒷받침, 리더십, 이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력의 필요, 강력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인문(학) 도시조성 조례

- 도시의 정책설계, 지역발전 기획에 인문학적 정신,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각 지역의 시도는 관련 법규도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표 V-1> 인문학 관련 자치법규명 및 내용

순번	법규명	시행일자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개정 구분
1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제4463호	2019. 9. 27.	제정
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제4632호	2013. 11. 7.	제정
3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제4288호	2017. 2. 9.	제정
4	경상남도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4671호	2019. 11. 7.	제정
5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제4014호	2017. 12. 28.	제정
6	경상북도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4120호	2018. 12. 27.	일부개정
7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제4391호	2014. 5. 2.	제정
8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	제1107호	2019. 4. 1.	제정

충북 어우러짐 인문가치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순번	법규명	시행일자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개정 구분
9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1510호	2019. 5. 20.	제정
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5189호	2019. 3. 15.	제정
1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제1283호	2017. 12. 29.	제정
1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4호	2017. 4. 18.	제정
1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5033호	2017. 10. 30.	제정
14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제5437호	2016. 9. 28.	제정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1098호	2019. 8. 28.	일부개정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1030호	2013. 3. 11.	제정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1020호	2014. 11. 13.	제정
18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3706호	2017. 9. 27.	일부개정
19	강원도 양구군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제2252호	2018. 10. 17.	일부개정
20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	제1271호	2017. 6. 13.	제정
21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제2010호	2019. 9. 26.	제정
2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2042호	2019. 11. 7.	제정
2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제5822호	2017. 7. 17.	제정
24	전라남도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4883호	2019. 7. 9.	제정
25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제3314호	2016. 7. 15.	제정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제216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7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제4296호	2017. 10. 10.	제정
28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	제2290호	2015. 4. 1.	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많은 도시들이 ‘인문학 진흥 조례’,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인문학도시 조성조례’ 등을 제정하여, 인문학을 교육과 행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타지자체(예 수원시, 안양시)와 같은 인문도시조성 조례나 조직,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충북지역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없음
- 어우러짐 인문가치는 인문도시조성 및 지역 인문진흥 계획에 활용될 수 있음

■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화, 인력 양성 및 확보

- 인문도시를 기획할 수 있는 연구기관과 실행 기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강사군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충북지역 내 대학: 충북대학교, 강동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 극동대학교, 꽃동네대학교, 세명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중원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
 - 인문도시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인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조 필요
 -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강사군 확보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의 인문학적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함

■ 기획, 참여, 평가자로서의 시민

- 일반적으로 대중인문학, 시민인문학, 로컬리티인문학이라면 중앙의 기획 및 예산 제공, 시민참여, 전문가 평가가 제각각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민들이 동시에 기획자, 참여자, 실행자, 평가자이어야 함
- 중앙은 지원사업의 예산만 공모신청을 통해 정하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지역민의 욕구에 의한 참여와 역할에 일임하여야 지역인문가치 제고와 대중화에 보다 더 가까워질 것임
- 또한 이는 지역민이 선호하는 교육내용과 체험 등을 토대로 향후 지역을 대표할 콘텐츠로 육성할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임(채영희, 2018: 55)

- 기존의 사업 사례로 수원지역의 화성, 풍기의 선비 문화, 목포의 섬 민속의 보유와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산의 해미읍성과 마애불, 남양주의 왕릉, 정약용 생가, 수목원 등을 들 수 있음
- 이것은 이미지화가 되고 있어 실질적인 브랜드로 안착되고 있는 중



결론

■ 요약

- 개념 : 충북형 어우러짐 인문가치
 - 충북민의 내향적 기질과 사통팔달의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하여 지역 공동체적 인문문화로 갈 수 있는 어우러짐 인문가치를 설정
 - 상호 호혜적이고 유기체적 특성이 포괄된 융복합적 자아로서 어우러짐 가치는 시간성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가치가 연계되고, 인간과 인간이 계층, 성별, 연령, 인종 간 소외 없이 소통, 공감, 나눔의 문화를 지향하며, 인간과 자연이 혼연일체가 되고, 숨쉬고 생활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내용으로 함
- 정책 목표
 - 소통, 공감, 통섭(統攝, Consilience), 나눔의 어우러짐 인문도시 구현
- 사례
 - 타 지자체 수원, 춘천, 산청과 도내 청주, 제천, 충주의 인문도시사업 경험으로부터 실적 위주나 소외계층 프로그램 부족, 관 주도의 시민참여 미약, 명확하지 않은 지역정체성 등의 단점을 지적
- 인문자산 발굴
 - 충북형 어우러짐 인문가치 제고와 관련하여 역사문화자원으로 충주탑평리7층 석탑, 직지심체요절, 태교 신교 등의 어우러짐 속성을 발굴하였고, 자연환경으로 미호천, 대청댐 등의 자원발굴과 개발, 도시공간 영역에서는 성안길, 수암골의 인문 가치화를 주장하였음
- 정책 수단
 - 충북 어우러짐 인문도시화와 인문가치 확산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문도시사업을 적극 활용
- 정책 방법
 -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소외계층 치유 프로그램 등에 녹여내어 향후 사업신청을 모색

- 이전에 선정되어 사업이 시행된 지역뿐만 아니라 미실시 지역도 대학, 지자체, 시민단체와 연계, 협력하여 지역의 어우러짐 인문문화가치와 자산을 발굴하고 사업을 기획
- 어우러짐 인문가치의 확산을 위해 기획, 참여, 평가자로서의 시민이 사업 주도

○ 인프라

- 행·제도적 인프라로 인문가치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인문도시 조성 조례 제정과 조직,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화와 인문 강사인력 양성 및 확보 등임

■ 향후 과제

- 어우러짐의 영역별, 예로 이념적 통합 및 어우러짐, 세대간 어우러짐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자원들을 연결하고 묶어내는 프로그램화 시도
- 지역 인문가치의 발견과 발굴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창출과 의미부여
- 어우러짐 인문도시 구축과 인문도시 프로그램의 시행은 소원해진 사회관계망의 강화로 이끌기 때문에 충북지역의 당면 과제인 예로 노인자살률의 감소 등에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
-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소외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소통, 공감, 협력의 어우러짐 인문가치를 강화하여야 하며 동시에 창의적 사고를 통한 역동적 도시 정체성과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치료 대상별 사례 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2015
- —, 『인문치료 실천 사례 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2016
- —, 『인문치료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7
- 강연호, 익산 인문도시 사업의 현황과 과제,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17(3),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12. pp. 63-85
- 강영안, 주체는 죽었는가, 문예출판사, 2001
- 김경복, 배달말학회, 배달말 50권 0호, 김소월의 ‘시혼(詩魂)’에 나타난 생태주의 성격 연구, 2016
- 김세원, 관계의 인문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9
- 김유동, 비움, 배움, 관계맺음 - 깨달음을 자극하는 인문치료, 인문과학연구 2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9, pp. 463-490
- 김은우, 1. 인문과학의 이해를 위하여(영역과 개념),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물, 일년, 1993, pp. 23-28
- 김정애, 충북학연구소, 충북의 재발견-미호천, 2017
- 김정호, 이선영, 윤용한, 도시지역내 하천경관이 대학생의 기분개선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청계천을 대상으로 -, 서울도시연구 제4권 제1호, 2013, pp. 169~182
- 김지원, 윤영득,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현황 및 시사점 - 한국연구재단 선정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7(2), 한국문화산업학회, 2017.6, pp. 19-26
- 김양식, <충북 대표 문화상징 기초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충북연구원, 2013
- 김현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정비방안, 국토연구원, 2003
- 박신영 외 3, 사회적 약자가 함께 하는 도시환경 조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pp. 103-114

- 박연규, 인문도시를 위한 인문정책 방향 : 수원시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8, 2015, pp. 36-69
- 박이문, 통합의 인문학: 등지의 철학을 위하여, 지와 사랑, 2009
- —,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사회비평. 7, '92.5, pp. 223-234
- 장성수, 권영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정책 방향, No. 32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pp. 3-17
- 천정환, 인문학 열풍에 관한 성찰과 제언: 시민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안과 밖 38호, 2015, pp. 100-129
- 최희봉, 인문학, 인문학 실천, 그리고 인문치료, 인문과학연구 2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6, pp. 327-346
-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 성과보고서, 청주, 명월 아래 인문의 청풍을 품다, 2015.9.~2018.8.
- 채영희, 인문도시사례분석을 통한 시민 의사소통 교육 가능성 모색,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6, pp. 39-57
- 안건혁, 도시계획에서 다룬 사회적 약자의 환경문제, 국토연구원, 2001
- 우기동, 「공동체적 삶 위한 실천인문학: 경희대 실천인문학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정책포럼』(1), 2009
- 열 쇼리스, 이병곤 임정아 고병현, 『희망의 인문학』, 이매진, 2006
- 오금호 외 4, 안전약자 유형별 생활안전 콘텐츠 발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pp. 87-89
- 오용준, 윤갑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계획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 원도연, 창조도시의 발전과 도시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인문콘텐츠, 제22호. 2011, p. 24
- 유현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을유문화사, 2019

- 이경기, 도시 서민층주거지역에서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행태의 상관성, 충북대 석사 논문, 1985
- 이봉희, 인문학의 가치 재평가: 인문치료. 인문치료총서2: 인문치료학의 모색,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9
- 이정희, 인문도시지원정책 성과에 관한 연구-인문도시지원사업의 성과 및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영의, 인문도시의 구조와 내용 : 춘천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8, 2015, pp. 96-117
- 한병철 저,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9
- 현웅, 깨달음과 역사, 불광출판사, 2009
- Kaufmann, W(1970/1995), The Future of the Humanities: teaching Art, Religion, Philosophy, literature and History, 이은정 옮김, 2011, 인문학의 미래: 왜 인문학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동녘
- 연합뉴스, 국제 ‘슬로시티’ 인증...기업+문화생태(2018.5.9.).
- 이영근(2010), 한겨레 칼럼, ‘자연 지배’ 아닌 ‘인간·생태 공존’의 물 정책돼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24284.html>.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포털사이트 홈페이지, <http://www.keep.go.kr>.
- 국립춘천박물관(chuncheon.museum.go.kr/)
- 경기도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ggeec.or.kr/>.
- 기초학문자료센터(<https://www.krm.or.kr>)
- 도서관사업소독서문화프로그램(http://www.suwonlib.go.kr/sk/html/03_culture/culture01.asp)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tour.go.kr/>.

- 박물관사업소 교육프로그램(<http://museum.suwon.go.kr/progrm/progrmList.do>)
- (사)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www.edutopia.or.kr>.
- 산청간디마을학교(www.gandhivillage.net/)
- 수원교육포털(http://www.suwon.go.kr/web/edu/BD_index.do)
- 수원문화재단(www.swcf.or.kr/)
- 수원문화재단 교육정보(<http://www.swcf.or.kr/?p=30>)
- 수원시청(<http://www.suwon.go.kr/>)
-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좌(https://learning.suwon.go.kr/lmth/02_pro/pro_02.asp)
- 작은도서관(www.smalllibrary.org/)
- 춘천시문화재단(www.cccf.or.kr/)
- 춘천시청(www.chuncheon.go.kr/)
- 한국선비문화연구원(www.koreasunbee.kr/)
- 한국슬로시티본부 홈페이지, <http://www.cittaslow.kr/>.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http://me.go.kr/gg/web/main.do>
- 환경부(2019), 법률 제15653호,물관리기본법(2018. 6. 12., 제정).
-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16). 2016년도 생태하천 우수 탐방·체험·교육 프로그램 사례집
- Marc Augé, Non-Places: An Introduction to Supermodernity, Verso, 2009

부록: 충북 대표 100대 인문자원(안)

분야	세부 분야	자원	개 요	비고
충북 상징 (4)	충북 상징	청풍명월 淸風明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란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이르는 말. 충북 자연의 맑고 깨끗함과 충북 사람들의 결백하고 온건한 성격을 평하는 말로 사용. 	
		충청도 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도 지역의 양반 가구 비율이 높았음. 	
		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 그 자체 '선비 문화'라 지칭할만한 포괄적 존재 충북 사람들을 일컫는 대표적인 기질. 	
		중원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중앙이라는 개념으로 중원(中原)을 사용. 	
지리 및 자연 분야 (36)	지리	금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남부 지역을 흐르는 우리나라 6대 하천의 하나. 	
		남한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북부 지역을 흐르는 대표적인 하천 	
		달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괴산군 괴산읍과 충주시를 흐르는 하천. 	
		미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부를 남서류하여 금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백두대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 충북 지역은 태백산에서 방향을 남서쪽으로 돌려 소백산(小白山), 죽령(竹嶺), 이화령(梨花嶺), 속리산(俗離山)으로 뻗어내림. 	
		조령(새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괴산군의 연풍면과 문경시 문경읍의 경계에 위치하는 고개. 조선시대에 영남 지방에서 서울에 이르는 영남대로 상에 위치한 고개 일제강점기에 이화령에서 충주 수안보로 통하는 3번 국도가 뚫린 후 새재길은 옛길로 남게 됨. 	
죽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단양군 대강면에 사이에 있는 고개 			
추풍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동군 추풍령면과 경북 김천시 봉산면의 경계에 있는 고개. 예로부터 영남지방과 중부지방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 경부선 철도의 추풍령역이 있고, 4번 국도가 통하며, 경부고속도로의 중간점으로 추풍령휴게소가 있음. 임진왜란 때에는 군사적 요충이 되어, 의병장 장지현(張智賢)이 의병 2,000명을 이끌고 왜군 2만 명을 맞아 분전 끝에 물리쳤고 (1차 전투), 다시 밀려온 4만 명의 왜군에게 패하여 장렬히 전사한 곳. 			

분야	세부 분야	자원	개 요	비고
		하늘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를 연결하는 옛길 2008년 12월 26일 명승 제49호로 지정.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아달라왕 때인 156년에 개척. 이는 죽령(竹嶺)보다 2년 앞선 것으로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백두대간 고갯길. 	
		한남 금북정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두대간의 속리산 천왕봉에서 갈라져 나와 충북 북부를 동서로 가르며 안성의 칠장산(七長山)까지 이어져 한강과 금강을 나누는 분수산맥.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의 충청남도·충청북도를 포함하는 지방. 제천 의림지의 서쪽이라는 뜻이 일반화. 	
		대청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 금강 상류에 대청댐 완공으로 조성된 인공호수. 대전시와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에 걸쳐있음. 	
		충주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5년 충주댐으로 인해 조성된 인공호수.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에 걸쳐 조성되어 육지 속의 바다로 불림. 	
	경관	충청도 양반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괴산호의 연하구곡, 갈은구곡, 화양구곡, 선유구곡, 쌍곡구곡을 연결하는 총 9코스 85km의 산책로. 2013년 3월 개장. 	
		단양팔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양군을 중심으로 주위 12km 내외에 산재하고 있는 충북을 대표하는 명승지. 	
		소백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양군 가곡면과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사이에 있는 산. 	
		속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과 괴산군,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化北面)에 걸쳐 있는 산으로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 	
		영동 물한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에 있는 계곡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여름철 피서지. 	
		옥계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동군 심천면에 있는 중부권 제일의 폭포. 	
		월악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천시·단양군·충주시와 경상북도 문경시에 걸쳐 있는 충북의 대표적인 산. 	
		제천 의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원삼국시대 저수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리시설 중의 하나. 	

분야	세부 분야	자원	개 요	비고
		제천 박달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시 봉양읍(鳳陽邑) 원박리(院朴里)와 백운면(白雲面) 평동리(平洞里) 경계에 있는 고개. • 1217년(고려 고종 4) 7월 거란군이 10만 대군으로 침공해 왔을 때 김취려(金就礪) 장군이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전공을 세운 전승지. • 1964년 발표된 노래 ‘울고넘는 박달재’가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림. 	
		진천 농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의 굴티마을 앞에 있는 다리로, 고려 시대에 축조되었다고 전함. 	
		청원 초정약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군 북일면(北一面) 초정리에 있는 약수 • 라돔 성분이 다량 함유된 천연탄산수로 세계 3대 광천의 하나 • 세종, 세조가 이곳에 머물며 눈병과 피부병을 치료한 기록이 전함. 	
		청주 가로수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부고속도로 청주로 들어오는 가로수길. • 1948년에 식재된 1,527그루의 플라타너스가 장관을 연출. • 청주를 들어오는 관문으로 전국의 진입로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평가. 	
		청풍 한벽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17년 제천시 청풍면 읍리에 건립된 누각. • 밀양의 영남루, 남원의 광한루와 함께 본채 옆으로 작은 부속채가 달려 있는 조선시대 누각 건물의 대표적인 예. • 옛날부터 시인묵객들이 찾던 대표적인 명소. • 1983년 충주댐이 세워지면서 청풍면 물태리 청풍문화재단지 내로 옮김. 	
		수안보 온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온천. •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자연적으로 용출된 온천으로서 약 3만 년 전부터 솟아 오른 천연 온천수.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30여 종의 역사책에 기록. • 일본인들에 의해 근대 온천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 	
		탄금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시 칠금동에 소재한 구릉지인 대문산(大門山) 산정 • 명칭은 우륵(于勒)이 이곳에서 가야금을 탄 일화에서 유래 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신립(申砮) 장군의 격전지로 유명. 	
		화양구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산군이 청천면에 있는 자연경관. • 우암 송시열이 머물며 제자들에게 강학하던 곳으로 한국 제일의 문화산수 	

분야	세부 분야	자원	개 요	비고	
	동식물	미선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한국 특산식물. 괴산군의 군자산록 전석지에서 자생. 	천연 기념물	
		보은 정이품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에 서 있는 소나무 1464년 세조가 법주사로 행차할 때 가마가 이 소나무 걸릴까 염려하여 “연(輦)걸린다”고 말하자 소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올려 어가(御駕)를 무사히 통과하니 이 소나무에 정2품(지금의 장관급) 벼슬을 내렸다고 하는 전설이 있음. 	천연 기념물	
		영국사 은행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영국사에 있는 은행나무. 수령을 약 1,000살 내지 1,300살로 정도로 추정. 	천연 기념물	
		청주 압각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중앙공원 내에 있는 약 900년 된 은행나무. 고려 공양왕 때 청주옥에 갇혔던 이색이 마침 큰 홍수를 만나게 되자 이 나무에 올라 화를 면했다는 일화가 전함. 		
		미호종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잉어목 미꾸리과의 민물고기로 한국 특산종. 1984년 신종으로 발표. 미호천 일대에 서식. 	천연 기념물	
	특산품	보은 대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은은 예부터 대추가 맛있기로 유명하였고 생산량도 많음. 보은의 대추가 약성이 좋다 하여 보은 약대추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대접. "비야 비야 오지 마라, 대추꽃이 떨어지면 청산 보은 시약시 시집 못 가 눈물 난다"는 옛 노래도 전함. 		
		제천 약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악지역이 많은 제천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약초의 생산량이 많았음. 제천은 서울 경동시장 등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약령시장으로 자리매김. 		
	역사 분야 (30)	역사 사건	서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라의 지방행정구역인 5소경(五小京) 중 하나. 현재의 청주지역에 설치되어 이후 청주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 	
			중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라의 지방행정구역인 5소경(五小京) 중 하나. 현재의 충주지역에 설치되어 이후 충주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 	
			청주성 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진왜란 당시 조현의 의병, 영규대사의 승병, 박춘무의 청주 의병 등이 합군하여 왜군에게 함락되었던 청주성을 탈환한 사건. 청주성의 회복은 단순히 청주 지역만의 회복이 아니라, 왜군이 호남지역과 충청우도(忠淸右道)로 진출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빼앗은 것. 	

분야	세부 분야	자원	개 요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병과 승병 그리고 관군이 연합하여 승리 • 이 지역 출신의 의병들이 직접 참여하여 승리 	
		청주 이인좌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후기 이인좌 등의 소론(少論)이 청주지역에서 주도한 반란. 무신란(戊申亂) 	
		보은 동학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3년 3월과 4월 동학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척왜양(斥倭洋)’을 내걸고 보은에서 개최한 집회. 	
		제천 의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을 비롯한 사군지역(제천, 청풍, 단양, 영춘)에 지리적, 학문적, 혈연적 연고의 기반을 한말 의병 	
		노근리 쌍굴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4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축조된 아치형 쌍굴 다리. •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후퇴하던 미군이 영동읍 주곡리, 임계리 주민과 피난민들을 굴다리 안에 모아 놓고 집단 학살을 자행한 우리 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안고 있음. 	
		청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별장. 제5공화국 때인 1984년 만들어져 2003년 3월 참여정부 때 개방, 지역 주민에게 돌려줌. 	
	사적 지	단양 선사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양개 유적을 비롯한 대표적인 선사유적지 	
		단양 온달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군 영춘면(永春面) 하리(下里)에 있는 삼국시대의 석축산성. •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 온달이 전사하였다고 전함. 	
		보은 삼년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에 있는 신라시대의 산성. 	
	유물	청주 상당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산성. • 조선 중·후기 석성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문화유산. 	
		단양 신라 적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 진흥왕 때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의 적성(赤城)에 세워진 비석 	국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에 있는 고려시대의 당간. •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3개의 철제당간 중 하나. 	국보
	충주 고구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석비로 5세기 무렵 고구려의 남진과 신라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역사적 유물. • 국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고구려의 석비. 	국보	

분야	세부 분야	자원	개 요	비고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상 종모양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8각의 평면을 이루는 형식으로 건립된 몇 안되는 탑 가운데 하나로, 조선시대 전기 조형미술의 표본이 되는 귀중한 유물. 	국보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7층석탑. 한국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하여 중앙탑이라고도 불리는데, 전설에는 785년경, 즉 신라 원성왕대에 세워진 것이라고 전함. 	국보
인물		우륵 (6세기중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야국과 신라의 악사(樂師) 가야국에서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하자, 왕은 그를 맞아 국원(國原 : 지금의 충주)에 안치시키고 계고(階古)·만덕(萬德)·법지(法知) 등을 보내어 그의 업(業)을 전습. 	
		정도전 (1337~1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양 출신으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격동의 시기에 역사의 중심에서 새 왕조를 설계한 인물. 	
		이천 (1376~14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세종 때의 무신·과학자. 금속활자인쇄기술의 개척자. 1434년(세종 16)에 갑인자(甲寅字)의 완성. 보은군 장안면 오창리에 세종의 유서를 판각한 유서각(諭書閣)과 실기비를 보호하기 위한 추원각(追遠閣)이 있음.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후손들이 예안이씨 집성촌을 이룸. 	
		박연 (1378~14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동 출신으로 고구려의 왕산악, 신라의 우륵과 함께 한국 3대 악성으로 추앙. 	
		송시열 (1609~16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중기의 학자. 노론의 영수. 뛰어난 학식으로 많은 학자를 배출. 청주의 화양서원, 옥천의 표충사·용문영당, 문의의 구봉서원, 영동의 초강서원 등에 제향. 	
		정일당강씨 (1772~18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천 출신의 조선 후기 여류시인이며, 여성실학자. 제2의 신사임당이라 평가 	
		손병희 (1861~1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 출신의 동학·천도교지도자, 독립운동가, 교육사업가. 동학의 3대 교주. 	
		신규식 (1879~1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 출신의 독립운동가, 대중교인. 상해에서 손문의 동맹회에 가맹하여 신해혁명에 공헌. 상해 등 국외에서 독립활동 	

분야	세부 분야	자원	개 요	비고
		신채호 (1880~19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가·언론인·독립운동가·무정부주의자.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에 사당과 묘소가 있음. 	
		홍명희 (1888~19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괴산 출신의 소설가, 언론인, 사회운동가, 정치가로 소설 『임꺽정』의 저자. 	
		정지용 (19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천 출신의 한국 현대시 사상 기념비적인 시인. 대표작: <향수> 	
		한운사 (1923~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괴산 출신의 우리나라 대표 방송작가. 대표작: 라디오드라마 <잘 돼 갑니다>, 영화 시나리오 <아낌없이 주련다>, <빨간마후라> 등. 괴산 청안에 '한운사기념관' 건립 	
		정순철 (1925~1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곡가로서 방정환과 함께 어린이운동의 주도적인 인물이었으나 남북으로 인해 주목받지 못함. '졸업식 노래', '짜자깡' 등 곡을 남김 	
사회 및 생활 분야 (12)	경제	충북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부선 조치원역과 제천시 중앙선 봉양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 	
		청주 육거리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및 남문로 1가 일대에 형성된 충북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1950년 이후에 형성됨. 	
	마을 생활	청마리 제신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마티마을에 있는 신당. 일반 서낭당과 달리 나무가 없고, 탑과 함께 솟대가 서 있는 것이 특징. 	
		오티별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천시 수산면 오티부락에 전승되는 충북의 유일한 서낭별신제. 	
		목계 별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에서 옛날 뱃길이 무사하고 내륙의 장사가 잘 되기를 비는 민속 의례. 	
		죽령 산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 전승되고 있는 마을제사로 조선시대에는 국행제(國行祭)로 봉행. 다자구 할머니를 신격을 모심. 	
	식생 활	올갱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갱이(민물다슬기)를 이용하여 만든 국으로 충북 금강과 남한강 상류 지역의 대표 음식. 	
		청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주 지역에서 청명일에 사용하기 위해 빚어진 충북의 대표적인 민속주. 	
		덕산막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천 덕산에 1930년 설립된 양조장에서 3대째 내려오며 빚고 있는 막걸리. 	

분야	세부 분야	자원	개 요	비고
종교 분야 (8)		대학 찰옥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래에 개발되어 괴산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옥수수로 찰기가 높아 쫄쫄한 감칠맛이 나며 담백한 맛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맛이라 평가 받고 있음. 	
	주생 활	보은 선병국가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은 장안면 장내리에 1919년에서 1921년 사이에 선정훈이 지은 개량식 한옥. 	
	체육	택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시대부터 전승되고 있는 한국 무술의 원류로서, 충주에 택견 전수관이 세워져 택견의 전수활동에 힘쓰고 있음. 	
	불교	법주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은 속리산 법주사는 서기 553년 의신조사가 창건한 역사 깊은 고찰이며, 수많은 문화유산과 불교전통을 간직한 호서지방 제일의 가람. 	
		구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 소백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사. 	
	유교	청주향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교는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 • 청주향교는 충북의 여러 향교 중 가장 대표적인 향교임. • 1444년 세종이 초정약수에 행차하였을 때 서책을 하사한 일이 있음. 	
		상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은 장내면 서원리에 있는 동주(東洲) 성제원(成梯元)이 세운 서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 다음으로 세워짐. • 충북에서는 첫 번째로 설립되고 사액받은 서원. 	
	천주 교	감곡성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청주교구 소속 성당으로 충북에서 최초로 건립된 성당. 	
		진천 배티성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에 있는 천주교 성지. 	
	기독교	청주 양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탑동양관 건물들은 한국 전통건축에서 근대건축으로 변모해 가는 과도기적 건축양식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건축사적 가치를 지님. 	
무속	충청도 얇은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객(經客)이 얇아 북과 징을 치면서 무경(巫經)을 읽어 양재기복(禳災祈福)하는 우리나라 무속의 하나인데 얇아서 독경하는 형태적 특징으로 이름을 ‘얇은굿’이라 하나 충청도에서 유행하고 특히 양반들이 선호하는 굿이라 하여 일명 ‘충청도 굿’ 또는 ‘양반 굿’이라 함. 		

분야	세부 분야	자원	개 요	비고
예술 분야 (10)	언어	충청도 말	•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말들 중에서 충청도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색있는 말	
	기록	직지 심체요절	•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물로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	
		반찬등속	• 1913년 진주 강씨 집안의 며느리인 밀양 손씨가 제작한 음식 조리서로서 100년 전 청주지역의 음식과 언어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양아록	• 16세기 학자 이문건이 손자를 양육하며 기록한 육아일기	
	무형 문화 재	금속활자장	•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각종 서적을 인쇄하는 기술 또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 1996년 오국진(吳國鎭)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복원해 금속 활자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지병으로 사망한 후 임인호가 그 뒤를 이어 기능보유자로 지정.	
	연희	청주 농악	• 청주시에 전승하는 농악으로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문화부장관상 수상	
		속리산송이 놀이	• 조선시대 민행제 의식으로 거행하던 놀이로 음란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근래에 재연시켜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 수상.	
	음악	청주아리랑	•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불리던 충북 지역의 대표적인 아리랑.	
		농요 (설계리, 마수리, 용몽리)	• 충북의 농요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 지역마다 다른 특징을 보임. 중원 마수리농요는 충북 북부지역의 대표 농요로 1972년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영동 설계리 농요는 남부 지역의 대표적 농요로 197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하여 대통령상을 수상.	
	문학	자린고비 설화	• 지독히 인색한 사람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과장하여 다룬 설화. •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지역적으로는 청주, 충주, 음성 등지 이야기가 유명.	
합 계	100			

참 여 연 구 진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책임 연구원	최 승 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 연구원	이 경 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 양 식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 미 경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김 미 옥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유 강 하	강원대학교 교수
	조 병 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2019 창의기획과제

충북 어우러짐 인문가치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발행인 | 정 초 시

발행일 | 2019년 12월

발행처 | 충북연구원

전화 043-220-1107 팩스 043-220-1199

285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 15)

I S B N | 978-89-6455-447-0 93350

* 본 출판물의 판권은 충북연구원에 속합니다.

*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2019년도 창의기획과제 본보고서의 전문은
충북연구원 홈페이지(www.cri.re.kr)를 참고바랍니다.

